한국어 및 한자음의 어휘확산적 변화 연구

이 상 억
(서울대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1.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15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 나타난 음운변화 및 형태변화의 결과를 개별적인 어휘들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들에 대한 계량적 검토를 근거로 실증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이론적 근거는 William S. Wang의 일련의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음운변화의 점진적인 어휘확산에 관한 그의 이론은 음운변화에 대한 예외없는 규칙성의 가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음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한 변화가 전체 어휘에 확산되는 과정은 매우 점진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Wang의 입장은 폭넓은 지지를 얻어 80년대 이후에는 음운변화 이외에 형태변화나 통사변화에 있어서도 어휘확산의 현상을 검토하고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어휘확산과 단어 사용 빈도간의 관계를 좀더 정밀히 검토하는 방법을 연구한 작업의 결과에 따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작업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5세기부터 19세기말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문헌들의 검색을 토대로 하여야 하는 까닭에 많은 문제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자료의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또 출현빈도수 산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단 본 작업은, 굴절어미가 붙는 복잡한 형태를 피하고, '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토 대상이 된 문헌자료들은 1447년 훈민정음 언해본으로부터 1900년 신약전서에 이르는 약 408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다소간의 오차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나 전체적인 어휘확산의 양상을 살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록 4>에 제시한 문헌의 목록과 시대별 문헌의 분량을 참조하기 바람.)

<제2장>의 부사들의 용례는 모두 158 항목에 이르는데 빈도수가 가장 많은 형태를 표제어로 하여 일련 번호를 붙여 놓았다. 연도별 부사 출현을 나타낸 표에서 모음·자음별 음운변화를 찾아 <제3장>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몇 개의 항목을 추출하여 세기별 분포를 보다 정밀히 살펴보았는데 이를 <부록 1>이라 한다. (선별된 표제항은 4, 5, 11, 19, 24, 25, 27, 28, 31, 34, 54, 70, 76, 77, 87, 99, 115, 116, 120, 126, 127, 128, 131, 136, 150, 154, 155항들이다.) 그리고 본문 다음에는 좀더 정밀한

어휘확산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바야흐로'의 2 경우만을 국한하여 아예 문헌별 출현빈도를 확인하였는데 이를 <부록 2>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어 음운사에 있어서 대표적 용례라 할 수 있는 부사 이외의 20개 항목들의 출현빈도를 참고로 첨부하였는데 <부록 3>이라 한다. 끝으로 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부록 4>의 '출전문헌'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2. 부사의 시대별 빈도 조사

본 작업은 앞서도 말했듯이 '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시대별 빈도 조사를 통해 점진적인 어휘확산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고립 형식인 부사가 곡용이나 활용을 하는 명사나 동사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다음의 예들은 부사들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異表記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들로 최초 출현년도와 최후 출현년도를 밝혀 놓은 것이다. 그리고 각 형태의 뒤에는 출현기간 중에 나타난 빈도수를 괄호 속에 밝혀 놓았다.

아래의 부사들의 경우는 'ㄱ, ㄴ, ㄷ…'의 순서로 배열하였고 모음의 경우 아래 'ㆍ'를 마지막으로 배열하였음을 참고하여 자료를 살피면 될 것이다. 특히 다음 <표 1>에서 3개 이하의 출현빈도를 보이는 경우는 '—'를 사용하지 않고 출현하는 연도를 각각 ','로 열거하여 밝혀 놓았다.

▼가온ᄃᆡ(가운데)▼1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가ᄫᆞᆫᄃᆡ (2)	1459				
가온ᄃᆡ (605)	1447	———	———	———	1900
가온디 (1)	1489				
가온대 (345)	1481	———	———	———	1895
가온데 (8)				1797 —	1887
가온ᄃᆡ (2)			1617, 1632		

순경음을 가진 어형은 15세기에 잠깐 보이고 'ㅸ>w'의 공식에 따라 '가온ᄃᆡ' 혹은 '가온대'의 형태가 주로 나타난다. 19세기까지 '가온-'의 형태만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표기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여도 '가운데'의 출현은 모음조화의 붕괴가 철저히 진행되는 근대 이후의 일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제3음절 모음의 변이는 아래 'ㆍ'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간 2 -157 항은 생략)

▼힝혀(행여)▼158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힝혀 (7)	1461	——1500			
힝혀 (139)		1517	———————————		1876
힝여 (8)			1600——	1774	
힝혀 (1)				1774	
행여 (0)					
행여나 (1)					1895

15세기의 'ㆆ'은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단어에서 16세기 이후에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이후 절대적인 출현빈도를 보이는 '힝혀'는 그 실제 발음에 있어서 15세기형과 다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힝여'를 통해 17세기 이후 'ㅎ'의 수의적인 탈락이 문면에 드러났으며 현대국어의 '행여'는 보이지 않지만 19세기에 '행여나'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이전 시기에 '행여'와 같은 형태의 등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어휘확산의 실제 국어례

앞 절에서 보인 바와 같은 실제 정밀한 조사에 근거하여 각례들 속에 숨어있는 음변화의 경우들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고찰대상〉

A. 모음변화

	적 례	중 간 례	반 례
Ⅰ 제1음절에서의 ʌ>a(ㆍ> ㅏ)	20	3	2
Ⅱ 비제1음절에서의 ʌ>ɨ(ㆍ> ㅡ)	22	5	13
Ⅲ 비제1음절에서의 ʌ>o(ㆍ> ㅗ)	6	10	7
Ⅳ o>u(ㅗ>ㅜ)	13	5	2
Ⅴ o>ɨ(ㅗ >ㅡ)	7		
Ⅵ ɨ>u(ㅡ>ㅜ)	4	4	

	적 례	중 간 례	반 례
Ⅶ 'i'모음 역행동화	3	4	4
Ⅷ 제2음절의 ʌ, ɨ > i (· 와 ㅡ> ㅣ)	4		1
Ⅸ yey>ey(ㅖ>ㅔ)	2	3	3
Ⅹ ya>a(ㅑ>ㅏ)	1	7	3
Ⅺ yə>ə(ㅕ>ㅓ)	6	5	
Ⅻ yo>o(ㅛ>ㅗ)	2		3

B. 자음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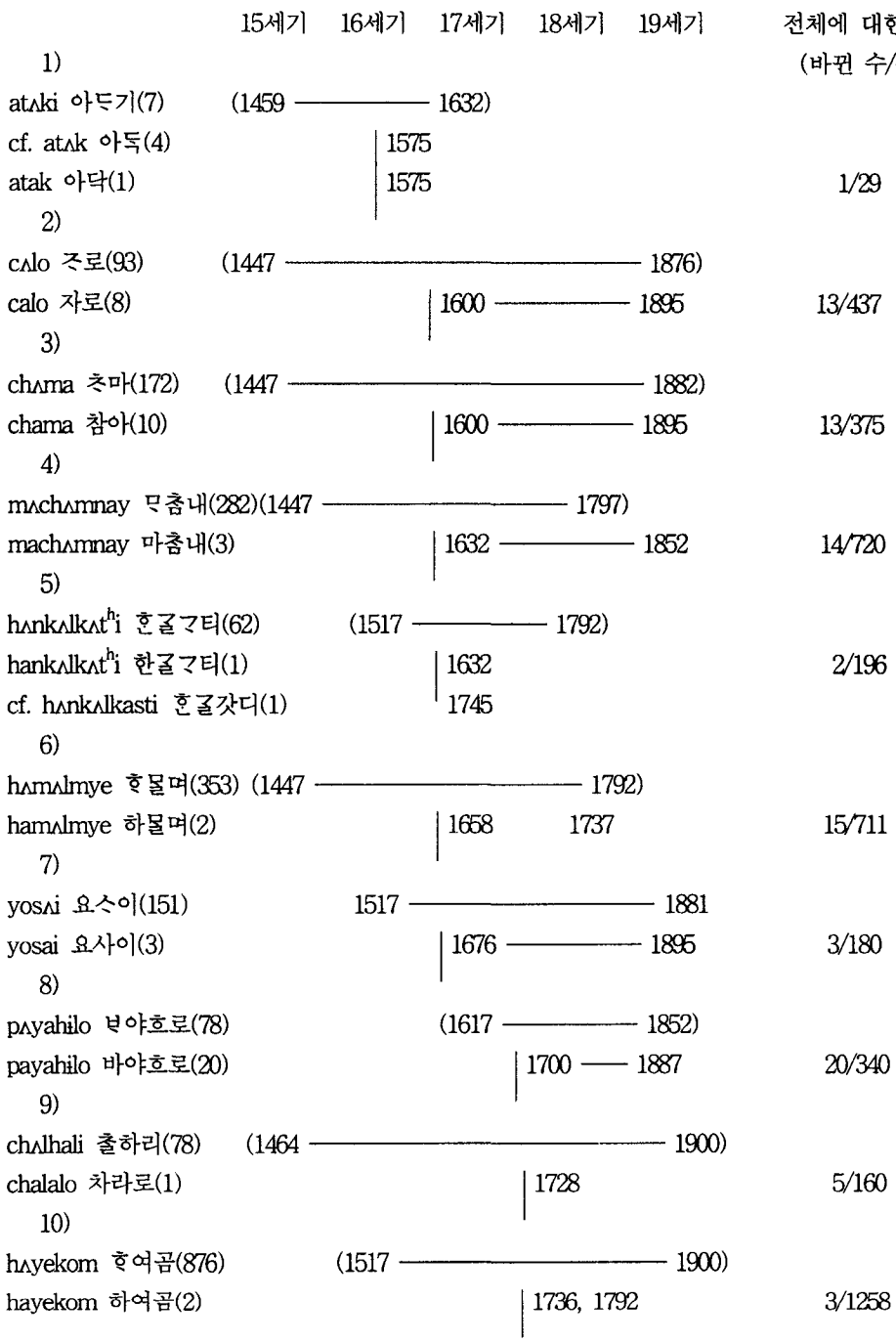
	적 례	중 간 례	반 례
Ⅰ β>ㅇ(ㅸ>ㅇ)	12		
Ⅱ z>ㅇ(ㅿ>ㅇ)	11		
Ⅲ hh>h(ㆅ>ㅎ)	1	1	
Ⅳ cc>c(sc) (ㅉ>ㅈ[ㅉ 표기출현])	2		
Ⅴ s>t(ㅅ>ㄷ)	8	1	5
Ⅵ t>c(ㄷ/ㅌ>ㅈ/ㅊ:구개음화)	7	1	3
Ⅶ l>n(ㄹ>ㄴ)	2		
Ⅷ k>s(ㄱ>ㅅ)	5		4
Ⅸ h>ㅇ(ㅎ>ㅇ(-hi:-i/-히:-이))	6	5	9

A. 모음변화

Ⅰ. 제1음절에서의 ʌ>a(· > ㅏ)

위에 보인 고찰대상 목록 가운데 우선 '모음변화'에서 '제1음절에서의 · > ㅏ'부터 실례를 들어 밝힌다. 연도는 ( ) 속에 쓴 것이 바뀔 형태에 관한 것이고 'ㅣ' 뒤에 쓴 것이 바뀐 형태에 관한 것이다. 제시 순서는 바뀐 연도가 이른 형태부터 보이겠다. 그리고 바뀐 형태의 수효가 총수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 즉 전체에 대한 비율을 '아닥 1/29'나, '자로 13/437'(13이란 숫자는 '자로 8'에다 후기에 나타난 '자조 3'와 '자주 2'까지의 합산)식으로 보였다. 이 비율이 기대보다 낮은 비중(또는 수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변화의 단초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며 이 연구에서

그 수량의 다소는 차후에 결론을 내릴 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문제다.



11)
hʌmskiy 흠씌(327) (1500 ——————— 1900)
hamskiy 함씌(175) | 1737 —— 1895 176/768
12)
selʌ 서ᄅ(528) (1475 ——————— 1795)
sela 서라(1) | 1744 1/3035
13)
mʌcʌmak ᄆᆞ즈막(18) (1459 ——————— 1900)
macimmak 마즘막(1) | 1763 10/31
cf. macʌmak 마즈막(1) 1795
14)
pʌlsye 볼셔(182) (1461 ——————— 1852)
palsye 발셔 (22) | 1763 —— 1900 22/233
15)
chʌlyeylo 추례로(41) (1481 ——————— 1900)
chalyeylo 차례로(3) | 1772, 1778 3/48
16)
cyekintʌs 져근ᄃᆞᆺ(2) (1600 —— 1772)
cyekintas 져근닷(2) | 1776 2/47
17)
cʌmo 즈모(152) (1463 ——————— 1796)
camos 자못(4) | 1796 ——1852 4/264
18)
nʌcʌki ᄂᆞ즈기(80) (1459 ——————— 1772)
nacaki 나작이(1) | 1805 1/93
19)
hʌŋsyaŋ 흥샹(99) (1575 ——————— 1900)
haŋsaŋ 항상(17) | 1852—1895 39/141
20)
hʌyŋhye 힝혀(7) (1461 —— 1500)
hayŋyena 행여나(1) | 1895 1/156

위의 20 단어가 바뀐 시기를 일별해 보면 1575년부터 1895년까지에 걸쳐 점진적으로 ʌ>a(ㆍ>ㅏ)의 변화가 확산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변화는 20 단어에 걸쳐 일률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어 예외가 보이지 않는다. 부사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20 단어만 집계되었지만 다른 단어 무리를 조사해 보아도 이 변화는 예외가 거의 없이 언제고

일어날 것이다.

<고찰대상>에서 중간례로 집계한 다음 3개의 경우는 적례도 반례도 아닌 것들이다.

21) ayyalʌsi 애야ᄅᆞ시(2)	1481, 1632	ayyala 애야라(4)	1481, 1632
22) cʌsyeyhi ᄌᆞ셰히(79)	1482 — 1900	casyehi 자셔히(2)	1496, 1670
23) aolnʌ 아올ᄂᆞ(1)	1887	aulna 아울나(1)	1887

이들은 1481 또는 1887년이란 같은 해에 일어났거나, 22)의 경우처럼 14년간이란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적어도 한 세대가 바뀌는 30년은 차이가 나야 할테니, 22)가 ʌ>a(ㆍ>ㅏ)의 변화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예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수례들이 전체 변화 방향에는 크게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다음 2례는 ㅏ가 ㆍ보다 앞선 반례를 보인다.

24) cayenhi 자연히(3)	1446	cʌzyenhi ᄌᆞ션히(10)	1489 — 1517
25) honca 혼자(128)	1517 —— 1900	honcʌ 혼ᄌᆞ(13)	1600 —— 1900

Ⅱ. 비제1음절에서의 ʌ>i(ㆍ>ㅡ)

우선 이 변화가 일어난 단어 22개를 시대순으로 먼저 보이기로 한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tamʌn 다몬(166)	(1447 ———				1776)	
tamin 다믄(28)		1500 ———			1869	28/1044
2)						
melccʌki 멀ᄶᅳ기(1)	(1489)					
melcisi 멀즈시(2)		1500	1670			6/8
3)						
etiystʌn 어듸ᄉᆞᆫ(3)	(1475 ——	1517)				
etiystin어듸ᄉᆞᆫ(1)		1517				1/33
4)						
ancʌk 안ᄌᆞᆨ(48)	(1447 ———				1749)	
ancik 안즉(8)		1517—1586, 1632				11/463
5)						
alʌmtye 아ᄅᆞᆷ뎌(9)	(1461 ———		1632)			

alimtye 아름뎌(3) | 1518 5/14
6)
hʌmʌlmye ᄒᆞ물며(353) (1447 ——————— 1792)
hʌmilmye ᄒᆞ믈며(320) | 1586 ——————— 1900 330/711
7)
poyyahʌlo 뵈야ᄒᆞ로(65) (1447 ——————— 1737)
poyyahilo 뵈야호로(6) | 1586 ————1737 208/340
cf. poyahʌlo 보야ᄒᆞ로(31) (1461 ——————— 1737)
poyahilo 보야호로(67) | 1586 ——— 1792
8)
palʌ 바ᄅᆞ(305) (1459 ——————————1737)
pali 바로(2) | 1632, 1676 2/480
9)
nʌcʌki 누ᄌᆞ기(80) (1459 ——————— 1772)
nʌciki 누즈기(3) | 1635, 1670 1765 3/93
10)
alʌmtai 아ᄅᆞᆷ다이(61) (1465 ——————————— 1852)
alimtai 아름다이(3) | 1658 1736 1876 5/72
11)
cʌmʌs ᄌᆞᄆᆞᆺ(23) (1586 ——— 1792)
cʌmis ᄌᆞᄆᆞᆺ(24) | 1658——1758 25/264
cf. cʌmʌt ᄌᆞᄆᆞᆮ(4) (1617——1752)
cʌmit ᄌᆞᄆᆞᆫ(1) 1748
12)
yocʌʌm 요ᄌᆞᄋᆞᆷ(3) (1632—1669)
yociim 요즈음(1) | 1670 1/18
13)
cʌnʌkcʌnʌki
ᄌᆞᄂᆞᆨᄌᆞᄂᆞ기(31) (1447 ——— 1632)
cʌnikcʌnik
ᄌᆞᄂᆞᆨᄌᆞᄂᆞᆨ(2) | 1728, 1763 2/36
14)
sʌltʌli ᄉᆞᆯᄃᆞ리(1) (1649—1659)
sʌltili ᄉᆞᆯ드리(1) | 1728 5/6
15)
mʌc^{h}ʌmnay ᄆᆞᄎᆞᆷ내(720)(1447 ——————— 1797)

mʌc^{h}imnay 므츰내(2) | 1728, 1765 2/720
16)
onʌlsnal 오늘날(66) (1447 ———— 1632)
onilnal 오늘날(4) | 1737 ——1881 4/146
17)
molʌmay 모ᄅᆞ매(1) (1632)
molimi 모름이(2) | 1763—1777 11/1103
18)
cyekintʌs 져근ᄃᆞᆺ(2) (1600 1772)
cyekintis 져근듯(2) | 1764 2/47
19)
mʌcʌmak 므즈막(18) (1459 ———————————— 1900)
mʌcimak 므즈막(1) | 1768 10/31
(이 예는 ʌ(·)의 존속시기가 i(ㅡ)보다 아주 더 긴 것이 특이하다.)
cf. macʌmak 마즈막(1) (1795)
macimak 마즈막(8) | 1869—1887
20)
atʌk^{h}i 아ᄃᆞ히(10) (1459 ———— 1632)
atik^{h}i 아득히(2) | 1795 1882 2/29
21)
tolʌhye 도ᄅᆞ혀(277) (1465 ———————1737)
tolihye 도르혀(2) | 1880—1881 2/752
22)
hʌnkʌlʌt^{h}i
ᄒᆞᆫ글ᄋᆞ티(41) (1461 ———— 1635)
hankilkasc^{h}i
한글갓치(1) | 1887 1/196

위의 22예들과는 반대로 i>ʌ(ㅡ>·)의 방향으로, 또는 i(ㅡ)형이 ʌ(·)형보다 먼저 나타나는 반례들이 조사 대상 중에 13예나 있다. 이 예들은 ʌ>i(·>ㅡ)의 변화에 유추되어 후기에 오히려 ʌ(·)로 적는 역표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23) kut^{h}iyye 구틔여(293) 1447 — 1752 kut^{h}ʌyye 구틴여(33) (1617 — 1758)
24) nencisi 넌즈시(13) 1463 — 1728 nencʌsi 넌즈시(1) (1797)
25) mulis 무릇(146) 1682 — 1881 mulʌs 무릇(36) (1756 — 1788)

26) pʌypili 비브르(23)	1481 — 1758	pʌypilʌ 비브ᄅ(1)	(1517)
27) sisilo 스스로(632)	1467 — 1796, 1895	sisʌlo 스ᄉ로(819)	(1617 — 1900)
		sʌsilo ᄉ스로(1)	1774
28) sihik 시흑(1)	1465	sihʌk 시ᄒ(1)	(1500)

<둘다 한 예씩만 보이므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던 'sihok(시혹)'의 잘못된 표기일 가능성이 많다.>

29) ecilei 어즈러이(165)	1461 — 1882	ecʌlei 어ᄌ러이(4)	(1600 — 1617)
30) izikko 이슥고(29)	1463 — 1518	iʌkko 이ᄋ고(1)	(1617)
31) imiy 이믜(709)	1500 — 1895	imʌy 이ᄆ(19)	(1600 — 1736)
32) it^{h}isnal 이틋날(17)	1447 — 1881	it^{h}ʌnnal 이ᄐ날(41)	(1617 — 1772)
33) ilcik 일즉(784)	1461 — 1895	ilcʌk 일ᄌ(79)	(1736 — 1900)
		cf. ilcʌki 일ᄌ기(2)	(1632 — 1670)
34) cimcis 짐즛(47)	1475 — 1880	cimcʌs 짐ᄌᆺ(3)	(1677 — 1761)
35) c^{h}eim 처음(46)	1632 -- 1900	c^{h}eʌm 처ᄋᆷ(6)	(1690 -- 1777)

그 밖에 ʌ(·)와 i(ㅡ)가 30년 이내의 거의 동일 시기에 나타나는 중간례들이 5이 있다.

36) pantʌki 반ᄃ기(1446)	1459—1637	pantiki 반드기(1)	1463
cf. pantʌsi 반ᄃ시(1556)	1481—1900	pantisi 반드시(16)	1517—1876
37) pentʌki 번ᄃ기(1)	1463	pentiki 번드기(50)	1447—1632
cf. pentʌsi 번ᄃ시(3)	1608—1746	pentisi 번드시(10)	1461—1761
38) selʌ 서ᄅ(528)	1475—1795	seli 서르 (1930)	1447—1749
39) milʌs 므ᄅᆺ(36)	1600—1900	milis 므릇(146)	1600—1900
40) molomcʌki 모롬즉이(2)	1761—1788	molomciki 모롬즉이(18)	1736—1881

이상의 3가지 적례, 반례, 중간례들의 비율로 보아, 비제1음절에서의 ʌ>i(·>ㅡ)의 변화는 완전히 지배적인 추세는 못되었고 대략 3/5 정도를 점하는 추세로 1500년부터 1887년 사이에 확산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Ⅲ. 비제1음절에서의 ʌ>o(·>ㅗ)

이 변화는 적례가 6, 중간례가 10인데 비해 반례가 7이나 되어 실제로 이 변화가 국어사에서 흔히 거론하듯 뚜렷한 추세를 이루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6개의 적례는 다음과 같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poyyahʌlo 뵈야ᄒᆞ로(65)	(1447 ———				1737)	
poyyaholo 뵈야호로(14)		| 1517 ——	1669			31/340
cf. pʌyyahʌlo 뷔야ᄒᆞ로(2)			(1617	1736)		
pʌyyaholo 뷔야호로(1)				1749		
2)						
cʌmo ᄌᆞ모(152)	(1463 ———				1796)	
como 조모(1)		| 1583				1/264
3)						
ayyalʌsi 애야ᄅᆞ시(2)	(1481		1632)			
ayyalosi 애야로시(1)		| 1588				3/24
4)						
kolʌi 고ᄅᆞ이(2)	(1463, 1481)					
koloi 고로이(7)			| 1608 ———		1887	42/44
5)						
hʌolo ᄒᆞ올로(155)	(1459 ———				1632)	
hoolo 호올로(13)			| 1617 ———		1876	328/807
cf. hollo 홀로(130)	1461 ———				1876	
6)						
pʌypilʌ 비브ᄅᆞ(1)		(1517)				
pʌypilo 비브로(2)			| 1632			3/55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출현하는 중간례로는 다음 10예가 있다.

7) kaβʌntʌy 가ᄇᆞᆫ디(2)	1459	kaontʌy 가온디(605)	1447 ——— 1900
8) kaskʌlo 갓ᄀᆞ로(30)	1459 —— 1632	kaskolo 갓고로(33)	1447 —— 1795
9) tolʌhye 도ᄅᆞ혀(277)	1465 —— 1737	tolohye 도로혀(398)	1481 ——— 1900
10) palʌ 바ᄅᆞ((305)	1459 —— 1737	palo 바로(173)	1482,1600 —— 1900
11) selʌ 서ᄅᆞ(528)	1475	selo 서로(487)	1459 ——— 1900
12) syukolʌi 슈고ᄅᆞ이(1)	1462	syukoloi 슈고로이(26)	1481 —— 1881
13) oʌlo 오ᄋᆞ로(43)	1447 —— 1632	oolo 오오로(8)	1481 — 1752
14) oylʌi 외ᄅᆞ이(10)	1463 —— 1632	oyloi 외로이(24)	1481 —— 1876
15) cozʌlʌi 조ᄉᆞᄅᆞ이(2)	1465	cozoloi 조소로이(1)	1481
16) hʌβʌza ᄒᆞᄇᆞ사(2)	1445	hʌoza ᄒᆞ오사(253)	1447 — 1496
		cf. hooza 호오사(1) 1461, hoza 호사(1) 1514	

나머지 7예들은 ㅅ>o(·>ㅗ)와 반대로 o(ㅗ)형이 먼저 나타나고 ㅅ(·)형이 오히려 뒤에 보인다. 이는 ㅅ(·)의 소실이 시작되면서 원래의 o(ㅗ)를 의고적 역표기 ㅅ(·)라고 과도교정해 적어놓은 예들이다.

17) molomay 모로매(768)	1447 —— 1752	molᄉmay 모ᄅ매(1)	(1632)
18) poyaholo 보야호로(16)	1517 —— 1792	pᄉyahᄉlo ᄇ야ᄒ로(3)	(1617)
cf. poyahᄉlo 보야ᄒ로(31)	1461 —— 1737		
19) sonzo 손소(41)	1447 —— 1876	soncᄉ 손ᄌ(2)	(1677)
20) sihok 시혹(888)	1447 —— 1752	sihᄉk 시ᄒ(1)	(1500)
21) aolo 아오로(108)	1463 —— 1852	aolᄉ 아오ᄅ(2)	(1887)
22) aco 아조(74)	1576 —— 1900	acᄉ 아ᄌ(1)	(1608)
23) yocozom 요조솜(4)	1586 —— 1632	yocᄉᄉm 요ᄌ옴(3)	(1632 —— 1669)

위와 같은 배분이 부사류에서만 특별히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면, 비제1음절에서의 ㅅ>o(·>ㅗ)의 변화는 별로 일반적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고 특수한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었겠다.

Ⅳ. o>u(ㅗ>ㅜ)

o(ㅗ)모음의 상승화로 u(ㅜ)가 되는 현상은 본 대상 자료에서는 'ceykum(제굼)'이란 예에서 16세기부터 관찰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주류를 이루는 변화의 다수례들은 1700년부터 1895년 사이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ceyyekom 제여곰(99)	(1447 ————		1632)			
cf. ceykom 제곰 (5)		(1517————	1664)			
ceykum 제굼(2)	| 1576		1700			2/115
2)						
selo 서로(487)	(1459 ————				1900)	
selu 서루(1)			| 1700			1/3035
3)						
amoli 아모리(48)		(1600 ————			1852)	
amuli 아무리(20)			| 1728 ——	1876		20/93
4)						
kaskolo 갓고로(33)	(1447 ————			1795)		
keskulo 것구로(4)			| 1741—	1795		11/74

5)

moto 모도(102) (1447 ——————————————1900)

motu 모두(5) | 1774 —— 1887 5/629

6)

mʌyo 미오(45) (1461 ——————————————— 1869)

mʌyu 미우(11) | 1880—1900 12/157

7)

pʌypilo 비브로(2) (1632)

cf. pʌypulokey 비부로게(1) (1741)

pʌypulukey 비부루게(1) | 1887 2/55

8)

maco 마조(94) (1447 ——————————— 1887)

macu 마주(4) | 1887, 1895 4/98

9)

cʌco 조조(331) (1447 ——————————— 1876)

cʌcu 조주(1) | 1869 3/437

cf. caco 자조(3) (1900)

cacu 자주(2) | 1887

10)

aolo 아오로(108) (1463 ——————————— 1852)

cf. aolnʌ 아올누(1) | 1887

aulna 아울나(1) | 1887 1/115

11)

sonso 손소(13) (1617 ———— 1852)

sonsu 손수(1) | 1895 1/122

12)

aco 아조(74) (1576 ——————————1900)

acu 아주(1) | 1895 1/76

13)

tomoci 도모지(17) (1748 ———— 1900)

tomuci 도무지(1) | 1895 1/19

위의 13예와는 달리 거의 동일 시기에 같이 쓰인 예들이 5나 보인다.

14) kyeyo 계오(18) 1517 —— 1796 kyeyu 계우(24) 1500 —— 1883

15) teok 더옥(595) 1447 —— 1900 teuk 더욱(436) 1447 —— 1900

16) piloso 비로소(212)	1481 —— 1900	pilusu 비루수(11)	1481 —— 1632
17) yocozom 요조숨(4)	1481 —— 1500	yocuzum 요주숨(1)	1481
18) cicilo 지즈로(94)	1481 —— 1632	cicilu 지즈루(4)	1481 —— 1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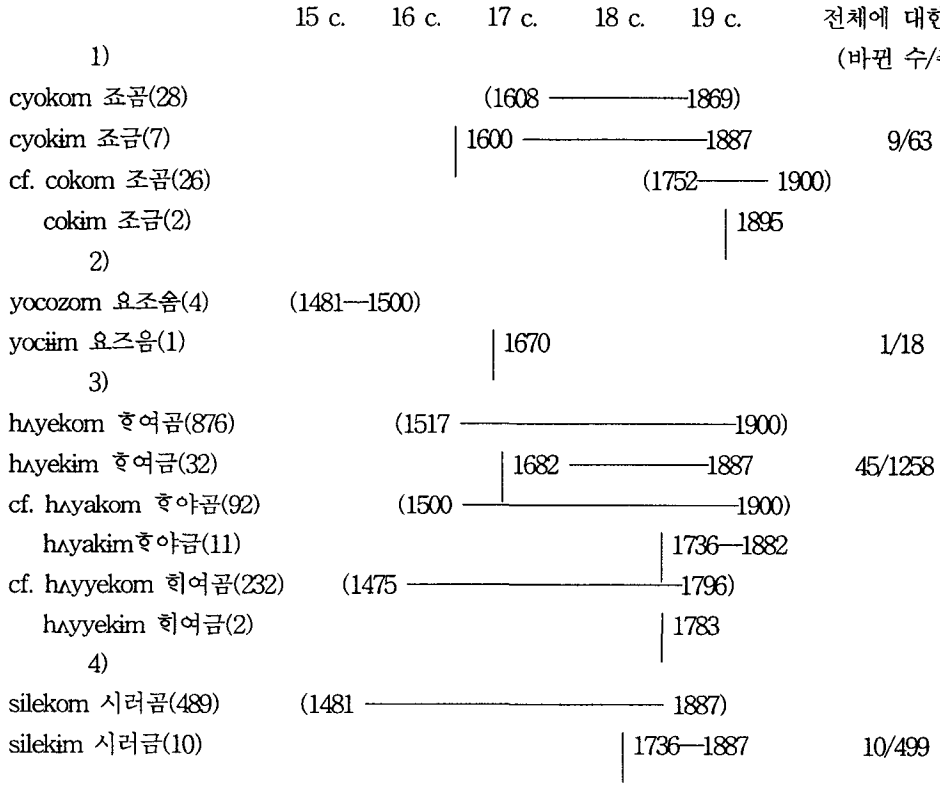
다음에는 u(ㅜ)가 o(ㅗ)에 선행하는 2개의 반례들도 있다.

19) tulu 두루(234)	1447 ---- 1900	tulo 두로(130)	1517 ---- 1900
cf. tulu 둘우(2)	1586, 1794	tulo 둘오(1)	1763
20) mulus 물웃(1)	1613	mulos 무롯(1)	1658

이상에서 보아 o>u(ㅗ>ㅜ)의 변화는 18의 예에서 적례 내지 중간례가 보여 그 존재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본다.

V. -om>-im(-옴>-음)

접사 '-om(-옴)'이 '-im(-음)'으로 바뀌는 연대도 다음과 같은 점진적 확산의 양상을 보인다.



5)
ceyyekom 제여곰(99) (1447 ———— 1632)
ceykim 제금(1) | 1763 1/115
6)
kʌskom 걋곰(11) (1657 —— 1752)
kʌskim 걋금(1) | 1795 1/12
7)
tasikom 다시곰(57) (1447 ———————— 1778)
tasikim 다시금(3) | 1876 3/64

이 변화에서는 중간례나 반례는 보이지 않는다.

VI. i>u(ㅡ>ㅜ)

순자음 뒤 i(ㅡ)모음이 순음화되는 적례에 다음 3가지가 있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piliso 비르소(24)	(1467 ————				—1887)	
piluso 비루소(3)		| 1517	1608—1632			14/569
2)						
milis 므릇(146)			(1600 ————		—1900)	
mulis 무릇(32)			| 1682 ————		1881	49/804
cf. milʌs 므릇(36)			(1600 ————		—1900)	
mulʌs 무릇(11)				| 1756—1788		
cf. miliys 믈읫(546)	(1447 ————			1796)		
muliys 물읫(2)	1465,			1721		
3)						
mintik 믄득(755)	(1447 ————				—1900)	
muntik 문득(91)			| 1617 ————		—1900	92/921
cf. mintis 믄듯(20)	(1481 ————		1632)			
muntis 문듯(1)				| 1776		
4)						
pʌypilikey 비브르게(7)	(1475 ————			1758)		
cf. pʌypilokey 비브로게(1)				| 1741		
pʌypulukey 비부루게(1)					1887	12/55
pʌypulikey 비부르게(5)					1887	

다음은 변화 연대가 30년 이내의 중간례들이다. c(ㅈ)뒤의 경우, 즉 4)도 같이 보였다.

5) cizim 즈슴(5)	1463 — 1569	cuzum 주숨(8)	1481
ciim 즈음(23)	1617 — 1900	cuum 주움(3)	1632
6) pilisu 비르수(24)	1481 — 1632	pilusu 비루수(11)	1481 — 1632
7) picyelepsi 브졀업시(3)	1669 — 1721	pucyelepsi 부졀업시(18)	1669 — 1852
8) picileni 브즈러니(215)	1447 — 1795	pucileni 부즈러니(7)	1721 — 1790

Ⅶ. i(ㅣ)모음 역행동화

우선 i(ㅣ)모음 앞에서 역행동화 현상을 보이는 3개의 예들을 보이겠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eyespi 어엿비 (320)	(1447 ———				1887)	
eyeyspi 어옛비 (2)	1496,1500					3/423
eyyeyspi 에옛비 (1)	1517					
cf. eyyespi 에엿비 (1)		1500 ———		1783		47/423
2)						
ohilye 오히려 (1471)	(1447 ———				1900)	
oyhilye 외히려 (6)		1579 ———	1617			6/1663
3)						
nooyya 노외야 (4)	(1481 ———		1690)			
noyya 뇌야 (1)					1869	4/184
cf. noiyye 노의여 (4)		(1500 ———	1617)			
noyye 뇌여 (3)			1677 — 1764			

위의 예3)은 단순히 '축약'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y 의 후행이라는 조건은 갖추었으므로 역행동화에 의한 'noy(뇌)-'의 형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음에는 거의 동시에 등장하는 중간 4예들이다.

4) pʌyyahilo 빙야호로(28)	1617 — 1852	pʌyahilo 병야흐로(1)	1617 — 1852
poyyahʌlo 뵈야ᄒᆞ로(65)	1447 — 1737	poyahʌlo 보야ᄒᆞ로(31)	1461 — 1737
5) sui 수이(275)	1461 — 1852	suyi 쉬이(35)	1461 — 1796
6) ayala 아야라(11)	1481 — 1776	ayyala 애야라 (4)	1481, 1632
7) ceyekom 저여곰(5)	1481 — 1632	ceyyekom 제여곰(99)	1447 — 1632

다음은 i(ㅣ)모음역행동화가 i(ㅣ)모음에 의한 역행동화를 겪지 않은 형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나타나는 반례 4이다.

8)	kuthʌyye 구틔여(33)	1617 — 1758	kuthʌye 구ᄐᆞ여(14)	1617 — 1797
	kuthiyye 구틔여(293)	1447 — 1752	kuthiye 구트여(1)	1632
9)	sʌlʌyye ᄉᆞ릐여(6)	1677 — 1765	sʌlʌye ᄉᆞᄅᆞ여(4)	1765, 1795
	sʌlʌyye 솔ᄋᆡ여(5)	1500 — 1670	sʌlʌye 솔ᄋᆞ여(3)	1657, 1795
10)	ayyalosi 애야로시(1)	1588	ayalosi 아야로시(1)	1632
11)	hʌyyekom 히여곰(2)	1475 — 1796	hʌyekom ᄒᆞ여곰(876)	1517 — 1900
	cf. hʌyyekim 히여금92)	1783	hʌyekim ᄒᆞ여금(32)	1736 — 1882

마지막 예11)의 경우는 두 형태의 짝들이 서로 선후가 상반된 연대를 보이는데, 그 사용례의 수를 보면 위의 짝이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역행동화한 형이 선행된 반례로 간주하였으나, 사실 역행동화 현상은 현재까지도 실제 발화에서는 흔히 나타나면서도 표기에는 속되다는 느낌 때문에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가령 옛부터 쓰인 'kumpeyŋi(굼벵이)'는 역행동화가 이미 표기에 반영되었지만, 'kenteki(건더기)'는 아직도 역행동화형을 저항하는 표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발음은 'kenteyki(건데기)'로 흔히 하고 있다.

Ⅷ. 제2음절에서의 ʌ(ㆍ), i(ㅡ) 등의 i(ㅣ)로 변화

사소한 변화로 볼 수 있으나, 19세기 후반 이후 제2음절에서 경구개 파찰음 ㅈ뒤의 ㆍ, ㅡ 등이 전설모음 'ㅣ'로 변화하는 한 무리의 예들이 있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ecilei 어즈러이(165)	(1461 ———				—1882)	
ecʌlei 어ᄌᆞ러이(4)			1600—1617			
ecilei 어지러이(2)					1883	2/190
2)						
nʌcʌki ᄂᆞᄌᆞ기(80)	(1459 ———			—1772)		
nʌciki ᄂᆞᄌᆞ기(3)			1635 ——	1765		
cf. naciki 나직이(0)						20 c. 0/93
3)						
ilcik 일즉(784)	(1461 ———				— 1895)	
ilcʌk 일ᄌᆞᆨ(79)				1736 ———	1900	
cf. ilccik 일찍(0)						20 c. 0/1014

4)

nencisi 넌즈시(13) (1463 ——————— 1728)

nencʌsi 넌주시(1) | 1797

cf. nencisi 넌지시(0) 20 c. 0/15

1), 3), 4)의 예에서 i(ㅡ)가 ʌ(·)로도 표기되었던 예는 아래 · 의 소실과 관련하여 의고적 역표기를 한 과도교정 예들이다. 한편 다음 1예는 경구개 파찰음 뒤에서의 전설모음화에 대한 과도교정 예라 할 수 있다. 즉 '즈'가 '지'보다 더 뒤에 나타나는 반례인 것이다.

5) ocik 오직(2868) 1447 — 1900 ocik 오즉(9) 1876 — 1883

Ⅸ. -yey>-ey(-ㅖ>-ㅔ)

표기상 어말의 'ey(ㅔ)'가 'yey(ㅖ)'로 변화하는 한 무리의 예들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syaŋsiyey 샹시예(8)			(1600 — 1746)			
syaŋsiey 샹시에(7)				1758—1797		7/41
2)						
cʌsyeyhi 주세히(79)	(1482 ———				1900)	
cʌseyhi 주세히(1)				1792		8/191
cf. cʌsyeyi 주세이(8)			(1632 ———		1852)	
cʌseyi 주세이(1)					1852	
cf. casyeyhi 자세히				(1748 — 1887)		
caseyhi 자세히					1887	

거의 동시에 'ey(ㅔ)'와 'yey(ㅖ)'가 보여 선후를 가리기 어려운 중간례도 보인다.

3) syaŋnye 샹녜(270)	1447 — 1518	syaŋne 샹녜(4)	1465 — 1496
4) estyey 엇뎨(1873)	1447 — 1776	estey 엇뎨(5)	1465 — 1496
5) moncyey 몬졔(6)	1447 — 1632	moncey 몬졔(1)	1461

'ey(ㅔ)'가 'yey(ㅖ)'보다 앞선 3개의 반례가 보인다.

6) cikcey 즉제(179)	1489 — 1790	cikcyey 즉졔(2)	1617, 1632

7) encey 언제(97)	1447 — 1900	encyey 언졔(6)	1764 — 1895
8) aiey 아이에(4)	1736 — 1783	aiyey 아이예(4)	1777 — 1792

이상의 변화에서 발음상으로는 'yey(ㅖ)'도 단모음 'ey(ㅔ)'로 중화되었을 것이지만, 표기상으로는 외형상 'ey>yey(ㅔ>ㅖ)'의 방향으로 바뀐 역표기를 한 것이다.

X. ya>a(ㅑ>ㅏ)

ya(ㅑ)에서 a(ㅏ)로 변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잡았을 때 적례는 1뿐이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hʌŋsyaŋ 흥샹(99)		(1575 ———			——— 1900)	
hʌŋsaŋ 흥상(1)				| 1795		18/141

그 중간례는 7이나 된다.

2) camskyan 잠갼(1)	1463	camskan 잠간(192)	1447 ——— 1632
3) syaŋnye 샹녜(782)	1447 ——— 1518	syaŋne 상네(4)	1465 ——— 1496
4) cyemcyem 졈졈(171)	1466 ——— 1900	cemcem 점점(7)	1466 ——— 1895
5) tyaŋsyaŋ 댱샹(30)	1461 ——— 1500	tyaŋsaŋ댱상(1)	1489
6) tamantyaŋ 다만댱(1)	1758	tamantaŋ 다만당(2)	1728, 1763
7) cyanstik 쟌슥(1)	1790	canstik 잔슥(1)	1768
8) haŋsyaŋ 항샹(22)	1880	haŋsaŋ 항상(17)	1852 ——— 1895

반례는 3이다.

9) hʌoa 호오아(58)	1481 ——— 1632	hʌoya 호오야(1)	1632
honca 혼자(128)	1517 ——— 1900	honcya 혼쟈(9)	1749 ——— 1876
10) chʌma 촘아(189)	1586 ——— 1882	chʌmya 촘야(1)	1756
11) silkʌcaŋ 슬킈장(6)	1728 ——— 1763	silkʌcyaŋ 슬킈쟝(2)	1876

XI. ye>e(ㅖ>ㅔ)

ye>e(ㅖ>ㅔ) 방향으로 변화하는 적례는 6이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pʌlsye 볼셔(182)	(1461 ———				——— 1852)	
pʌlse 볼서(1)				| 1600		3/233

cf. palsye 발셔(22) (1763 —— 1900)
palse 발서(2) | 1895
2)
syelpkey 셟게(10) (1463 ———————— 1795)
selpkey 셟게(1) | 1600 1/21
3)
kuthiyye 구틔여(293) (1447 ———————— 1752)
kut^{h}Aye 구틔어(1) | 1632 1/395
4)
esye 어셔(67) (1447 ———————————— 1852)
ese 어서(2) | 1876 2/69
5)
chyenchyeni 쳔쳔이(13) (1600 ———————— 1869)
c^{h}enc^{h}eni 쳔쳔이(1) | 1895 1/14
6)
mencye 먼져(13) (1758 — 1887)
mence 먼저(1) | 1895 1/1665

중간적 예는 5개가 보인다.

7) moncye 몬져(1573)	1447 —— 1900		monce 몬저(22)	1467 —— 1792	
8) syeli 셔르(1)	1463		seli 서르(1930)	1447 —— 1749	
9) chyezem 쳐섬(3)	1465 —— 1576		chezem 처섬(487)	1447 —— 1579	
10) cyenhye 젼혀(173)	1447 —— 1882		cenhye 전혀(5)	1459 —— 1763	
11) cyemcyem 졈졈(171)	1466 —— 1900		cemcem 점점(7)	1466 —— 1895	

XII. yo>o(ㅛ>ㅗ)

yo>o(ㅛ>ㅗ)의 방향으로 변하는 적례는 2로 크게 잡을 수 있겠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cyoyoŋhi 죠용히(5)			(1676 ——1777)			
coyoŋhi 조용히(1)						3/50
cf. cyoŋyoŋhi 죵용히(37)		(1517 ———————— 1900)				
coŋyoŋhi 종용히(1)						

cf. cyoŋyoŋi 죵용이(5)	(1748 ——— 1900)	
coŋyoŋi 종용이(1)	| 1852	
2)		
cyokom 죠곰(28)	(1608 ——————1869)	
cokom 조곰 (26)	| 1752 ————1900	28/63
cf. cyokim 죠금(7)	(1600 ——————— 1887)	
cokim 조금(2)	1895	

이에 대한 반례는 다음 3개가 보인다.

3) momso 몸소(125)	1586 ——— 1852	momsyo 몸쇼(1)	1795
4) piloso 비로소(24)	1467 ——— 1887	pilosyo 비로쇼(7)	1772 ——1900
5) sonco 손조(61)	1500 ——— 1876	syoncyo 숀죠(2)	1600, 1876

B. 자음변화

I. β > ㅣ(ㅸ > ㅇ)

순경음 β(ㅸ)은 15세기 중반(1445—75)까지 존속하다 소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ㅣ(ㅇ)으로의 변화는 점진적이라기보다는 1447—81년 사이에 거의 일시적으로 한 세대(약 30년) 안에 일어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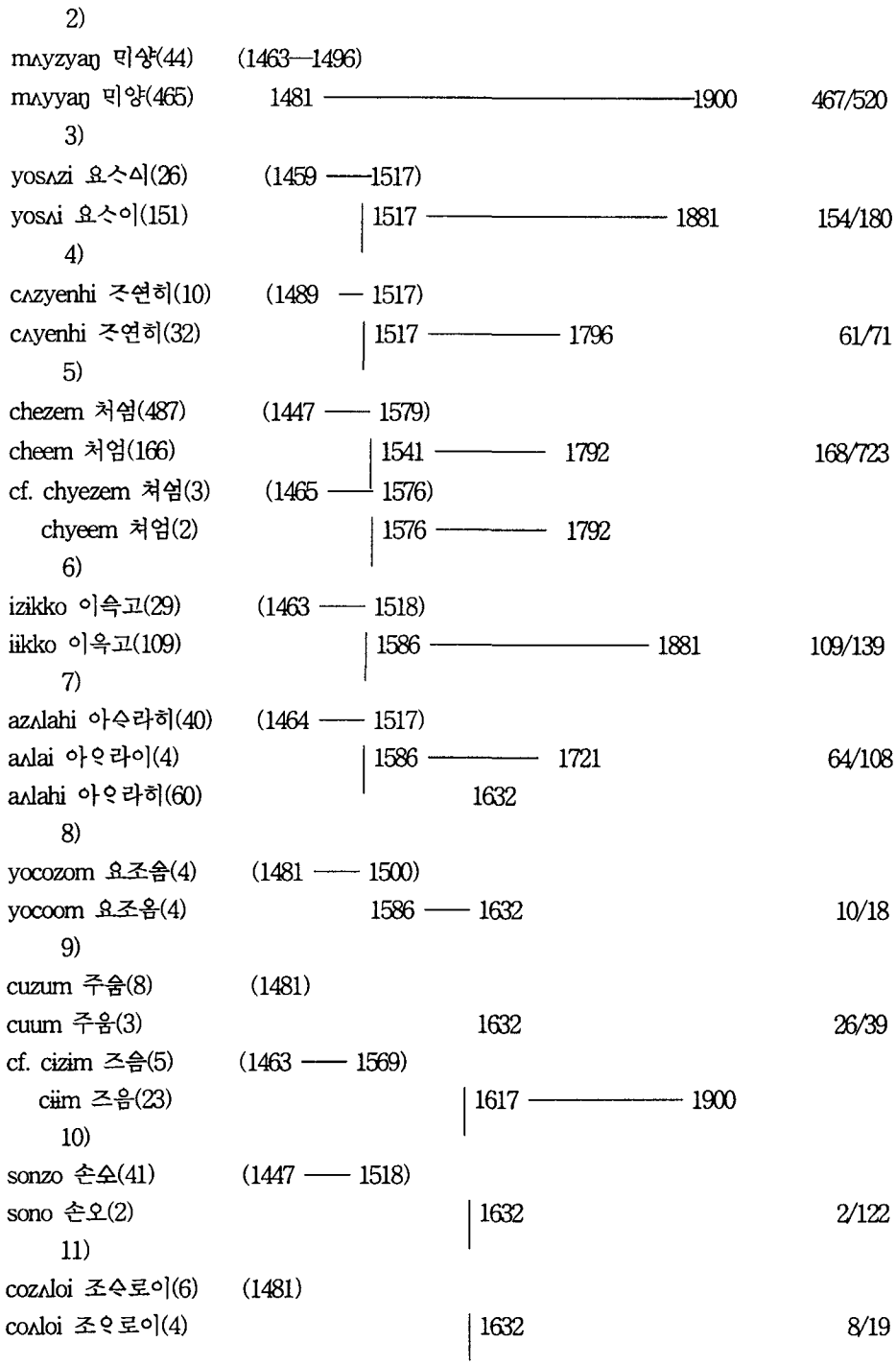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1)						(바뀐 수/총수)
hʌβʌza ᄒᆞᄫᅀᅡ(2)	(1445)					
hʌoza ᄒᆞ오ᅀᅡ(253)	1447—1496					506/807
2)						
kaβʌntʌy 가ᄫᆞᆫ디(2)	(1459)					
kaontʌy 가온디(605)	1447 ———				1900	961/963
3)						
kaskaβi 갓가ᄫᅵ(18)						
(1447—1459)						
kaskai 갓가이(163)	1461 ———				1900	163/216
4)						
mʌyβi ᄆᆡᄫᅵ(2)	(1447, 1481)					
mʌyi ᄆᆡ이(65)	1461 ———			1797	1852	97/157

cf. mʌβi 무비(1) (1481)
mʌi 무이(32) 1517 ——————— 1869
5)
syelβi 셜비(1) (1459)
syeli 셜이(9) 1461 ——— 1676 9/21
6)
elyeβi 어려비(6) (1459—1467)
elyei 어려이(58) 1461 ——————— 1790 58/67
7)
suβi 수비(19) (1447—1475)
sui 수이(275) 1461 ——————————— 1852 314/395
8)
ecileβi 어즈러비(10) (1447—1467)
ecilei 어즈러이(165) 1461 ——————————— 1882 173/190
9)
alʌmtaβi 아롬다비(1) (1459)
alʌmtai 아롬다이(61) 1465 ——————————— 1852 63/72
10)
cozʌlʌβi 조ᄉᆞᄅᆞ비(1) (1467)
cozʌlʌi 조ᄉᆞᄅᆞ이(2) 1465 17/19
11)
potʌlaβi 보ᄃᆞ라비(1) (1447)
potʌlai 보ᄃᆞ라이(5) 1475 ——— 1632 5/8
12)
saonaβi 사오나비(4) (1447—1467)
saonai 사오나이(4) 1481 ——————— 1797 11/17

Ⅱ. z>ㅣ(ㅿ > ㅇ)

z(ㅿ)의 소멸은 1445—1569년간에 β(ㅸ)보다는 완만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된다. ㅣ(ㅇ)의 등장도 1481—1632년 사이에 걸쳐 장기간에 일어났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hʌβʌza ᄒᆞᄫᅀᅡ(2)	(1445)					
hʌoa ᄒᆞ오아(58)	1481 ——— 1632					60/807


2)
mʌyzyaŋ 믜샹(44) (1463—1496)
mʌyyaŋ 믜양(465) 1481 1900 467/520
3)
yosʌzi 요ᄉᆞ싀(26) (1459 —1517)
yosʌi 요ᄉᆞ이(151) 1517 1881 154/180
4)
cʌzyenhi ᄌᆞ연히(10) (1489 — 1517)
cʌyenhi ᄌᆞ연히(32) 1517 1796 61/71
5)
chezem 처섬(487) (1447 — 1579)
cheem 처엄(166) 1541 1792 168/723
cf. chyezem 쳐섬(3) (1465 — 1576)
chyeem 쳐엄(2) 1576 1792
6)
izikko 이슥고(29) (1463 — 1518)
iikko 이윽고(109) 1586 1881 109/139
7)
azʌlahi 아ᄉᆞ라히(40) (1464 — 1517)
aʌlai 아ᄋᆞ라이(4) 1586 1721 64/108
aʌlahi 아ᄋᆞ라히(60) 1632
8)
yocozom 요조솜(4) (1481 — 1500)
yocoom 요조옴(4) 1586 — 1632 10/18
9)
cuzum 주숨(8) (1481)
cuum 주움(3) 1632 26/39
cf. cizim 즈슴(5) (1463 — 1569)
ciim 즈음(23) 1617 1900
10)
sonzo 손소(41) (1447 — 1518)
sono 손오(2) 1632 2/122
11)
cozʌloi 조ᄉᆞ로이(6) (1481)
coʌloi 조ᄋᆞ로이(4) 1632 8/19

Ⅲ. hh>h(ㆅ > ㅎ)

hh>h(ㆅ>ㅎ) 변화는 예가 드물지만 15세기 중엽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tolʌhhye 도ᄅᆞᅘᅨ(51)	(1447—1467)					
tolʌhye 도ᄅᆞ혀(277)	1465	———	———	———	1737	677/752

위와 같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예 중에 h(ㅎ)이 hh(ㆅ)보다 앞선 다음 예도 있다.

2) cyenhye 젼혀(173) 1447 —— 1882 cyenhhye 젼ᅘᅨ(1) 1464
cf. cenhye 전혀(5) 1459 —— 1763

Ⅳ. cc>c(ㅉ > ㅈ)

cc(ㅉ)표기가 c(ㅈ)으로 또는 sc(ㅉ)으로 쓰이다가 결국 현대국어에서는 cc(ㅉ)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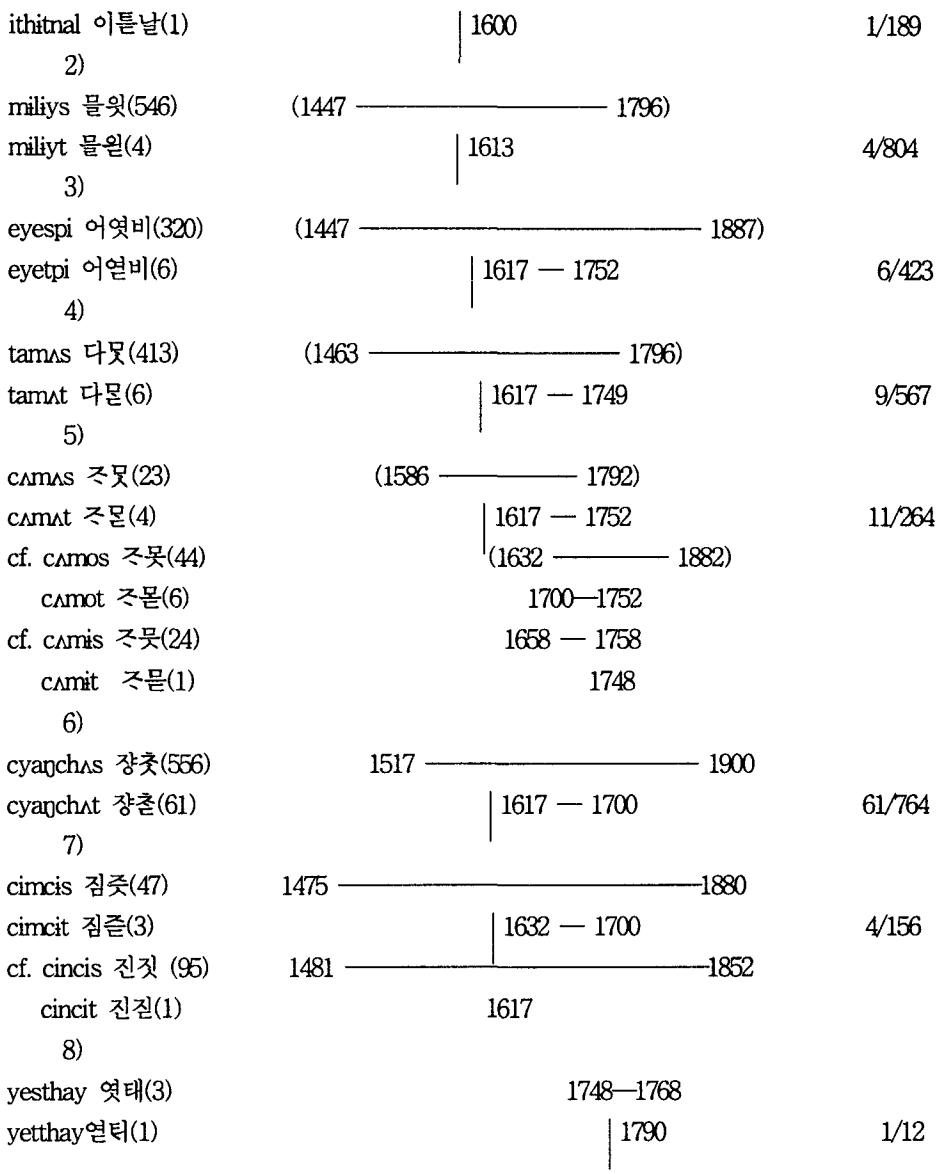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ilccekiy 일ᄶᅥ긔(1)	1459					
ilccik 일ᄶᅳᆨ(3)	1464					
ilcik 일즉(784)	1461	———	———	———	1895	939/1014
cf. ilscik 일ᄽᅳᆨ(54)				1721—1795		
2)						
melccʌki 멀ᄶᅮ기(1)	1489					
melcisi 멀즈시(2)		1500	1670			2/8
cf. melsciki 멀ᄽᅳ이(1)				1741		

위의 예를 볼 때 cc(ㅉ)과 c(ㅈ)은 원래부터 서로 거의 같은 시기에 표기에 반영되었다.

Ⅴ. s>t(ㅅ>ㄷ)

음절말 s(ㅅ)이 t(ㄷ)으로 중화되어 나타나는 다음 8례가 있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ithisnal 이ᄐᆞᆺ날(17)	(1447	———	———	———	1881)	



t(ㄷ)받침이 s(ㅅ)으로 변하는 한 무리의 반례들이 다음과 같이 발견된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s>t(ㅅ>ㄷ) 음운변화 방향과는 반대로, 표기상에서는 ㄷ도 다시 ㅅ받침으로 획일화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9)-13)의 한 무리의 반례에서 보이듯이 외면적 표기상의 변화는 ㄷ>ㅅ방향이었지만 발음상으로는 s>t의 음운변화가 먼저 일어난 것이다.

9) motnay 몯내(32) (1447 — 1569) mosnay 못내(18) (1600 — 1895)

10) tetteti 덛더디(15)	(1461 — 1632)	testesi 덧덧이(26)	(1658 — 1795)
11) cyekintet 져근덛(15)	(1463 — 1752)	cyekintes 져근덧(26)	(1600 — 1876)
12) mitpi 믿비(14)	(1459 — 1632)	mispi 밋비(3)	1737
13) pentitsi 번듣시(1)	(1670)	pentissi 번듯시(1)	1876

또한 중간례로 거의 선후를 가리기 어려운 다음의 1례도 있다. 이미 15세기에 s(ㅅ)과 t(ㄷ)이 중화가 된 듯하다.

14) cyenskʌt 졌ᄀᆞᆮ(4)	1461 — 1465	cyenskʌs 졌ᄀᆞᆺ(7)	1459 — 1475

Ⅵ. t/t^h > c/c^h(ㄷ/ㅌ> ㅈ/ㅊ) 구개음화

t>c(ㄷ>ㅈ)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들이 17-8세기에 걸쳐 보인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esti 엇디(2199)	(1459 ———				1883)	
esci 엇지(1540)			1600 ———		1900	1547/5699
cf. estyey 엇뎨(1873)	(1447 ———				1776)	
escyey 엇졔(7)			1632 ——	1746		
2)						
hʌnkʌlʌth i 흔ᄀᆞᆯᄋᆞ티(41)	(1461 ———		1635)			
hʌnkʌlʌch i 흔ᄀᆞᆯᄋᆞ치(1)			1612			25/196
cf. hʌnkʌlkʌth i 흔ᄀᆞᆯᄀᆞ티(62)		(1517 ———		1792)		
hʌnkʌlkʌch i 흔ᄀᆞᆯᄀᆞ치(6)				1761—1792		
cf. hʌnkʌlkʌsth i 흔ᄀᆞᆯᄀᆞᆺ티(26)			(1632 ———		1797)	
hʌnkʌlkʌsch i 흔ᄀᆞᆯᄀᆞᆺ치(15)				1746—1784		
3)						
ati 아디(895)	(1475 ———			1797	1882)	
aci 아지(518)			1632 ———		1900	526/1421
4)						
etiti 어디디(52)	(1459 ———			1746)		
ecici 어지지(16)				1746 — 1882		17/69
5)						
nemti 넘디(60)	(1459 ———			1788)		
nemci 넘지(6)				1765 — 1887		6/66

6)			
motili 모디리(7)	(1463 ——— 1617)		
mocilkey 모질게(1)		1777	1/12
7)			
it^hyelo 이텨로(3)	(1600 ——— 1756)		
ic^hyelo 이쳐로(3)		1790	4/7

(t^h>c^h(ㅌ>ㅊ)구개음화도 함께 다룸.)

중간례로 간주될 수 있는 예는 그 출현시기의 차가 다음과 같은 30년 정도인 경우이다.

8) tomoti 도모디(1) 1778 tomoci 도모지(17) 1748 — 1900

반례로는 다음과 같이 원래 c(ㅈ)으로 먼저 쓰이다가 역표기로 t(ㄷ)이 후대에 나타난 것들이 있다.

9) moncye 몬져(1573)	1447 — 1900	montye 몬뎌(34)	1660 — 1794
moncyey 몬졔(6)	1447 — 1632	montyey 몬뎨(1)	1756
10) acik 아직(336)	1447 — 1900	atik 아딕(4)	1600 — 1797
11) ocik 오직(2868)	1447 — 1900	otik 오딕(66)	1632 — 1882

Ⅶ. l>n(ㄹ>ㄴ)

유음화 현상에 대한 저항으로 과도교정이 되어서 나타난 형태인지 조사 '-lo(로)'가 l(ㄹ)받침 뒤에서 오히려 '-(no)노'로 바뀐 2예가 보인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sillo 실로(133)	(1447 ———				———1900)	
silno 실노(109)			1600 ———		———1900	109/242
2)						
cinsillo 진실로(528)	(1466 ———				——— 1887)	
cinsilno 진실노(263)				1658 ———	——— 1900	263/795

Ⅷ. k>s(ㄱ>ㅅ)

'k/ki(ㄱ/기)→s/si(ㅅ/시)'의 변화 경향이 대두되다가 현대에 일부는 k(ㄱ), 또 일부(pantisi(반드시), pentisi(번드시))는 s(ㅅ)이 남게 되었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pentiki 번드기(50)	(1447 ———		1632)			
pentisi 번드시(10)	1461 ———			1795		15/71
cf. pentʌki 번드기(1)	(1463)					
pentʌsi 번드시(3)			1608,1670	1746		
2)						
pantʌki 반드기(1446)	(1459 ———		1637)			
pantʌsi 반드시(1556)	1481 ———				1900	1572/3023
cf. pantiki 반드기(1)	(1463)					
pantisi 반드시(16)		1517 ———		1876		
3)						
mintik 믄득(755)	(1447 ———				1900)	
mintis 믄듯(20)	1481 ———		1632			21/921
cf. muntik 문득(91)			(1617 ———		1900)	
muntis 문듯(1)				1776		
4)						
melccʌki 멀쯔기(1)	(1480)					
melcisi 멀즈시(2)		1500	1670			2/.8
5)						
nʌcʌki 누즈기(80)	(1459 ———			1772)		
nʌcʌsi 누즈시(2)		1586				2/93

's(ㅅ)'이 'k(ㄱ)'보다 앞선 반례가 4개 보인다.

6) nencisi 넌즈시(13)	1463 — 1728	nenciki 넌즈기(1)	1481
7) mintisi 믄드시(52)	1481 — 1632	mintiki 믄드기(2)	1632
cf. mintik 믄득(755)	1447 — 1900		
8) ilcisi 일즈시(3)	1500 — 1658	ilciki 일즈기(1)	1608
9) cimcis 짐즛(5)	1475 — 1880	cimcik 짐즉(1)	1850 — 1863

Ⅸ. -hi>-i(-히>-이)

'-hi(히)>-i(이)'로 변화하는 것이 다음의 6례가 있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cʌzyenhi 즈션히(10)	1489 ——1517					
cʌyenni 즈연이(26)		1517 ———————————			1881	26/71
2)						
phenanhi 편안히(51)	(1463 ———————————			1783)		
phenani 편안이(30)		1517 ———————————			1887	30/82
3)						
hʌyŋhye 힝혀(179)	(1461—1500)					
hʌyŋye 힝여(8)		1600 ———		1774		9/156

[이 예는 'hi>i(히:이)'의 대립이 아니고 'hye>ye(혀:여)'의 대립이지만, h(ㅎ)약화로서 여기 포함시켰다.]

4)						
cʌsyeyhi 즈셰히(79)	(1482 ———————————				1900)	
cʌsyeyi 즈셰이(8)		1632 ———————			1852	19/191
5)						
poyyahʌlo 뵈야ᄒᆞ로(65)	(1447 ———————————			1737)		
payailo 바야으로(20)				1736		1/340

[이것은 'hi(히):i(이)'의 대립이 아니라 'hʌ(ᄒᆞ):i(으)'로 대조가 되지만, h(ㅎ)약화로 여기 넣었다.]

6)						
coŋyoŋhi 죵용히(37)		(1517 ———————————			1900)	
coŋyoŋi 죵용이(5)				1748 ———	1900	6/50

'-hi(히)'와 '-i(이)'가 거의 동시에 보여 선후를 가리기 어려운 중간례가 4이 있다.

7) mastaŋhi 맛당히(500)	1467 — 1481	mastaŋi 맛당이(482)	1459 — 1518
8) siyhi 싀히 (5)	1481 — 1632	siyi 싀이(1)	1481
9) azʌlahi 아ᄉᆞ라히(40)	1464 — 1517	azʌlai 아ᄉᆞ라이(2)	1481 — 1482
		cf. aʌlai 아ᄋᆞ라이(4)	1586 — 1721
10) pucilenhi 부즈런히(4)	1579 — 1782	pucileni 부즈런이(24)	1586 — 1783

[30년 이내의 연대 차이에서는 선후를 가리기 어려움.]

11) himhimhi 힘힘히(3) 1670 — 1765 himhimi 힘힘이(13) 1669 — 1795

'-i(이)'가 '-hi(히)'보다 앞선 반례도 9이 보인다.

12) picileni 브즈러니(7)	1447 — 1795	picilenhi 브즈런히(4)	1579 — 1782
13) taŋtaŋi 당당이(119)	1447 — 1496	taŋtaŋhi 당당히(10)	1617 — 1887
14) chiki 츼기(29)	1447 — 1632	chikinhi 측은히(7)	1746 — 1900
cf. c^{h}ikyeni 측연이 (3)	1756		
15) siyksiyki 쉭싁기(80)	1447 — 1632	siyksiykhi 쉭싁히(6)	1475 — 1797
16) kaskai 갓가이(163)	1461 — 1900	kaskahi 갓가히(34)	1881 — 1900
17) thikpyeli 특별이(127)	1517 — 1881	thikpyelhi 특별히(14)	1745 — 1792
18) epsyui 업슈이(65)	1576 — 1882	epsyuhi 업슈히(2)	1876 — 1880
19) atʌki 아득이(1)	1700	atikhi 아득히(2)	1795, 1882
20) mastaŋi 맛당이(482)	1517 — 1900	mastaŋhi 맛당히(500)	1586 — 1900

위와 같이 '-hi(히)>-i(이)'의 변화를 가정할 때 적례는 5(사실 4번은 'hʌ(ㅎ):i(으)'의 대조가 되므로 '-hi(히)>-i(이)'의 적례는 아니지만 h(ㅎ)약화라는 큰 테두리에서 관련되므로 삽입하였다.), 증간례는 4, 반례가 7이나 되어 꼭 '-hi(히)>-i(이)'라고 변화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어원적으로 대부분의 예들이 '-hata(하다)'에서 유래된 것들이므로 '-hi(히)'를 원천적인 형태로 생각해 보는 쪽이 좋을 것이다. 이 결과는 h(ㅎ)약화가 꽤 오래전부터 표기에 반영될 정도로 우세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한편 '-i(이)'가 '-key(게)'로 형태론적 변화를 입게 되는 시기도 위와 관련하여 주목해 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들이 15세기 이후에 보인다.

	15 c.	16 c.	17 c.	18 c.	19 c.	전체에 대한 비율 (바뀐 수/총수)
1)						
tyohi 됴히(293)	(1447	———	———	———	1876)	
tyokhey 됴케(32)	1447	———	———	———	1900	32/325
2)						
cohi 조히(123)	(1447	———	———	———	1881)	
cokhey 조케(51)	1447	———	———	1796		51/174
3)						
khi 키(116)	(1446	———	1637)			
khikey 크게(606)	1459	———	———	———	1900	606/722

4)

potʌlai 보ᄃᆞ라이(5)	(1475 ———— 1632)	
potʌlapkey 보ᄃᆞ랍게(2)	1459, 1466	2/8

5)

elyei 어려이(58)	(1461 ———————— 1790)	
elyepkey 어렵게(3)	1463 1617 1790	3/67

6)

tutkei 둗거이(16)	1463 ————1632	
tutkepkey 둗겁게(2)	1517—1586	6/74

7)

saonai 사오나이(11)	1481 ———————— 1797	
saonapkey 사오납게(2)	1517 1900	2/17

8)

syeli 셜이(9)	(1461 ———— 1676)	
syelpkey 셟게(10)	1463 ———————— 1795	11/21

9)

tuthei 두터이(50)	(1466 ———————————— 1862)	
tuthepkey 두텁게(4)	1466 ———————— 1772	4/74

10)

alʌmtai 아ᄅᆞᆷ다이(61)	(1465 ———————————— 1852)	
alʌmtapkey 아ᄅᆞᆷ답게(5)	1517 ———————— 1852	7/72

11)

etui 어두이(3)	(1463)	
etupkey 어둡게(5)	1658 ———————— 1820	17/73

12)

sui 수이(275)	(1461 ———————————— 1852)	
suypkey 쉽게(7)	1670 ———————— 1900	7/395

13)

etili 어디리(8)	(1461 ———————— 1772)	
etilkey 어딜게(3)	1736	7/23

14)

syukoloi 슈고로이(26)	(1481 ———————————— 1881)	
syukolopkey 슈고롭게(7)	1736—1790	7/34

15)

lepi 러비(3)	(1576, 1579 1637)	

lelpkey 렙게(1)			1736	4/19
16)				
mitpi 믿비(14)	(1459 ———— 1632)			
mitpikey 믿브게(4)		1746—1797		4/21
17)				
koyloi 괴로이(23)		(1600 ———— 1881)		
koylopkey 괴롭게(11)		1748 —— 1887		11/44
18)				
motili 모디리(7)	(1463 ———— 1617)			
mocilkey 모질게(1)		1777		1/12
19)				
oyloi 외로이(24)	(1481 ———— 1876)			
oylopkey 외롭게(1)			1887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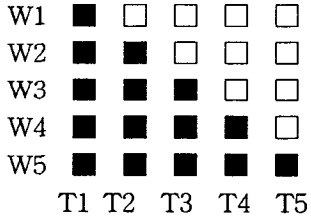
'-i(이)'가 '-(key)게'보다 훨씬 후대에 나타난 다음의 1예도 있다.

20)				
pʌypilli 비블리(7)		1658—1682		
pʌypilikey 비브르게(7)	1475 ———— 1758			1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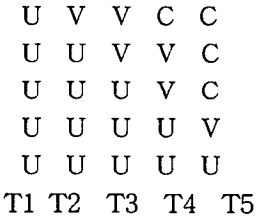
4. 결 론

위의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관찰한 바를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주목할 수 있다.

우선 첫째 문제점으로서 2장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각 어항은 일시에 단일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이형으로 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도식1이 아니라 도식2와 같이 될 것이다(W : 단어, T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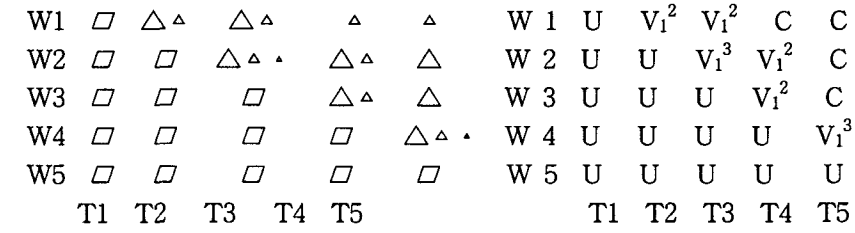
도식1a



도식1b

도식1a는 각 어항이 ■에서 □으로 단번에 바뀌는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도식1b와 같이 원형 U(unchanged)에서부터 변이형 V(variant)를 거쳐 변화형 C(changed)로 이행되는 것이 현실적 표현일 것이다.

또 이 가운데 변이형은 2장의 많은 어항례에서 보았듯이 V1, V2, V3 등이 다음과 같은 도식2로 형상화 할 수 있겠다.



도식2a 도식2b

여기서 V1, V2, V3 등을 도입하는 것은 실제로 변이형들이 여럿 나와 서로 공존하다가 그 중 하나로 정착되든가(W1, W3) 그러면서도 변이형의 수가 V3에서 V2로 줄든가(W2) 여전히 경합하든가(W4) 또는 아무 변화가 없든가(W5)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변이형의 양적 표현까지 한 것이 도식2a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변이형은 그 출현빈도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양에 따라 ▵나 △식으로 그 크기를 달리 그려본 것이다. 이 피라미드식 시각적 표현방법을 문자로 충실히 평면화한다면 V_1^3 즉 변이형이 1에서 3까지 있다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각 변이형의 크기를 활자 크기로 바꿔 $\triangledown_1$ $\triangledown_2$ $\triangledown_3$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다. 결국 그 결과는 다음 도식2c와 같이 될 수 있겠다.

W1	U	V_1V_2	V_1V_2	C	C
W2	U	U	$V_1V_2v_3$	V_1V_2	C
W3	U	U	U	V_1V_2	C
W4	U	U	U	U	$V_1V_2v_3$
W5	U	U	U	U	U
	T1	T2	T3	T4	T5

도식2c

이와 같이 양적인 크기가 다른 변이형이 점진적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단일 변화형으로 귀일되는 과정이 우리 언어변화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어휘확산이 포착하고자 하는 대상이 될 것이며, 종래의 어휘확산 이론은 도식1a의 단계

로만 표현되었으나 아마도 도식2c로 표현하는 데까지 발전시켜야 언어 현실에 더 맞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제2장의 예들을 볼 때 많은 경우에 표기법이 의고적인 과도교정을 하여 실제 발음과는 달리 된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 소위 중간례로부터 반례에 해당되는 많은 변이형들이 실제 발음과는 달리 표기되어 변화의 주류를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원래 어휘확산 이론의 취지와 이런 현상이 아무 부조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바로 소장문법학파들이 모든 변화가 아무 반례없이 일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규정한 것을 반박하고 내놓은 이론이 바로 어휘확산이기 때문에 반례들이 많이 보이는 데이터가 오히려 이 이론의 적용 대상으로 더 적절한 것이다.

이 논문의 기술을 마치면서 붙여두고 싶은 말은, 이런 종류의 연구가 표면에 나타난 표기에 의해 자료를 전산 처리한 것이므로 정확한 계량은 되어도 오각, 편의각 등의 선별과 자료의 심층적 음미 해석은 충분치 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래 아 등 여러 표기법이 보수성으로 인하여 당대의 제 모습을 안 보일 수도 있었다. 또 자료를 뽑은 현존 문헌 자체가 각 분야와 시기에 걸쳐 고르게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그러한 문헌을 모두 다 빠짐 없이 전산 입력하여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있다. 여기 모인 자료는 다만 입력된 문헌 중 현재 여건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대상을 포함토록 노력했다는 것만 밝히며 그 과정에서 음양으로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었음도 감사한다. 특히 이 작업의 기둥이 되어준 김경아 박사에게도 감사한다.

〔**후기**〕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98년도 국외석학과의 공동 연구 지원금을 받아 '한국어 및 한자음의 어휘확산적 변화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여기 발표된 부분은 모두 '한국어'에 관한 것이고, '한자음'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Monograph Series/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Project on Linguistic Analysis/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 한 권으로 전체 원고를 영문으로 발간할 때 포함될 것이다. 한자음 부분은 강원대 엄익상 교수가 한자음 중 '구개음화'를 초점으로 공동 연구하였다.

여기에 발표된 '한국어' 부분은 조사의 정확성과 편의를 위해 '부사'에 국한하였고, 그 2장에서 158항을 조사하며 각 항마다 설명을 붙였으나 지면관계상 첫째와 끝 항만을 보였다. 부록 1~3도 한두 항씩만 보여 지면을 절약하였으나, '어학연구' 34권 2호에 158항이 영문으로 다 나열되었고(거기서도 설명부분은 생략), 위에 보인 Monograph/JCL에는 본인이 편집인(guest editor)으로 초청받아 전 원고가 생략 없이 다 수록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Chen, Matthew Y. and William S-Y. Wang. 1975. "Sound Change: Actuation and Implementation." *Language* 51.2:255-281.

Lee, Sang-Oak. 1977. "Conspiracy in Korean Phonology Revisited: As Applied to Historical Data."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 7.2:1-23; Also i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Chin-W Kim, Columbia: Hornbeam Press Inc., 45-57.

_____ *et al.* 1984. *Korean Phonology.* Seoul: Hakyŏnsa Publishing Co.,

_____ 1986. "An Explanation of Syllable Structure Change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2.2: 195-213; Also in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 16.2:121-133.

Wang, William S-Y. and Chinfa Lien. 1993. "Bidirectional Diffusion in Sound Change." In *Historical Linguistics: Problems and Perspectives, ed. by* Charles Jones, New York: Longman. 345-400.

부록 1 선별된 부사 (27개) 항목의 세기별 분포

▼계요(겨우)▼4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겨오(11)				11	
겨요(17)			4	13	
겨우(3)					3
겨유(23)			6	7	10
계오(18)		2	5	11	
계요(55)		1	15	39	
계우(24)		6	13	2	3
계유(30)			12	17	1

▼괴로이▼5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고로이(7)			4	1	2
괴로이(23)			3	15	5
괴로히(1)				1	
괴롭게(11)				5	6
고ᄅᆞ이(2)	2				

▼넘디(넘지)▼11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넘디(60)	32	7	11	10	
넘지(6)				2	4

이후 24 항목은 지면상 생략.

부록 2 선별된 2개 부사 '먼저'와 '바야흐로'의 문헌별 출현빈도

▼먼저▼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몬뎌 (34)			1660 ——	1794	
몬뎨 (1)				1756	
몬져 (1573)	1447 ————				1900
몬저 (22)	1467 ————			1792	1900(*)
몬졔 (1)	1461				
몬졔 (6)	1447 ————		1632		
몬지 (14)	1447 ————			1778	
몬쥐 (1)				1792	
몬쳐 (1)			1682		
먼져 (14)				1758 —	1887
먼저 (1)					1895

시기 / 이형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총빈도수
몬뎌			<60, 신구황1회> <82, 馬經, 1회>	<46, 自省編 6회> <56, 闡義 25회> <94, 윤음 1회>		34
몬뎨				<56, 闡義 1회>		1
몬져	<47b, 釋詳 15회> <47c, 月千 2회> <59, 月釋 73회> <61, 楞嚴 107회> <63, 法華 54회> <64a, 禪永 23회> <64c, 金諺 2회> <64d, 般諺 6회> <65a, 圓覺 125회> <66, 救方 23회> <67a ,牧牛 4회> <67b, 蒙法 1회> <67c, 法語 1회> <75a, 內訓 21회> <81, 杜詩-初 26회>	<00?, 飜老 18회> <17, 飜朴, 2회> <17, 飜小 38회> <17, 正俗-이 2회> <18, 呂氏-존 7회> <18, 二倫-옥 7회> <54, 救撮 2회> <76, 百聯 1회> <76, 新合 1회> <79, 禪家, 11회> <86, 小諺 51회>	<00?, 계축, 11회> <00?, 납약, 2회> <08, 痘瘡 26회> <08, 胎産, 14회> <13, 東醫一, 1회> <17, 東新烈 58회> <17, 東新續忠, 2회> <32, 家禮 71회> <32, 杜詩-重 40회> <35, 煮焰, 1회> <35, 火砲, 5회> <37, 勸念, 7회> <53, 辟新 2회> <58, 警民重, 4회> <58, 女訓上, 1회>	<21, 伍倫 32회> <28, 靑丘, 8회> <36, 女四 13회> <37, 御內 19회> <41, 蒙老 18회> <45, 常訓, 4회> <46, 自省編 23회> <48, 改捷 21회> <49, 論栗諺 10회> <49, 大栗諺, 9회> <49, 孟栗 6회> <49, 中庸栗谷 3회> <52, 地藏 7회> <56, 闡義 8회> <58, 種德 16회>	<52, 感應 15회> <69, 閨閤, 13회> <76, 가곡, 8회> <76, 南宮, 1회> <81, 죠군, 2회> <83, 明聖, 3회> <84, 五倫經 4회> <87, 예셩-눅 7회> <00, 신약 54회>	1573

시기 / 이형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총빈도수
몬져	<82a, 南明 1회> <82b, 金三 6회> <85b, 靈驗 2회> <89, 救簡 21회> <96a, 六祖 6회> <96b, 三壇 3회> <96b, 眞供 1회> <97, 神仙 1회>		<60, 신구황, 1회> <64, 類合, 1회> <70, 老乞 20회> <76, 捷解初 16회> <77, 朴通, 20회> <82, 馬經 20회> <86, 신구황 3회> <98, 煮硝, 2회> <00, 類合, 2회>	<61, 警問, 7회> <63, 警問續, 5회> <63, 해동, 2회> <64, 고금, 2회> <64, 祖訓, 8회> <65, 朴新 25회> <65, 百行, 1회> <65, 淸老 17회> <72, 史略 14회> <74, 三譯總解 16회> <76, 念普-海 9회> <77, 明義 21회> <78, 方集 1회> <78, 續明, 8회> <82, 윤음 10회> <83, 주홀뎐측, 3회> <84, 윤음 2회> <88, 가체, 5회> <90, 隣語 4회> <90, 捷蒙 1회> <90. 武藝, 3회> <92, 無寃錄 51회> <94, 윤음 2회> <95, 老乞重 24회> <95, 윤음 1회> <96, 敬信 9회> <96, 奠說권션곡2회> <96, 奠說슈션곡2회> <97, 五倫 14회>		1573
몬저	<67a, 牧牛 11회>	<00?, 飜老 2회>	<08, 痘瘡, 1회> <17, 東新烈 1회> <32; 杜詩-重 1회> <35, 火砲, 3회>	<92, 無寃錄 2회>	<00, 신약-마1회>	22
몬제	<61, 楞嚴 1회>					1
몬졔	<47b, 釋詳 3회> <63, 法華 1회> <96a, 六祖 1회>		<32; 杜詩-重 1회>			6

시기 / 이형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총빈도수
몬지	<47b, 釋詳 1회> <59, 月釋 2회> <89, 救簡 2회>			<00?, 倭類, 1회> <68, 蒙類補, 2회> <75, 譯補 3회> <78, 方集 3회>		14
몬쥐			<82, 馬經, 1회>			1
몬쳐			<82, 馬經上, 1회>			1
먼져				<58, 種德 1회> <72, 史略 1회>	<68, 醫宗, 1회> <69, 閨閣, 5회> <80, 過化, 1회> <80, 三聖, 2회> <81, 丕군, 1회> <87, 예성 2회>	14
먼저					<95, 國漢 1회>	1

원래 예정되었던 '바야흐로'는 지면 관계상 생략.

부록 3 부사 이외의 대표적 용례 20 항목의 세기별 분포

다음은 15세기부터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음운변화를 반영하는 국어 음운사의 대표적 용례들(부사 이외) 20항목을 참고로 뽑아 놓은 것이다.

▼ᄭᅮ짖-▼1 (어두 경음화의 경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구짇- (18)	1447	———	1617		
구짖- (86)	1447	———	———	———1730	
구짓- (22)	1459	——1586			
ᄭᅮ짇- (67)			1617	——1768	
ᄭᅮ짖- (257)		1500,1576	———	———	———1900 ('ᄲᅮ짖-'의 경우도 포함)
ᄭᅮ짓- (137)		1586	———	———	1900

▼혀-▼2 ('ㅎㅎ'의 소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혀- (62)	1447	—1463			

혀- (132) 1447 ——————————— 1900
켜- (45) 1635 ———————— 1900

이하 18항은 생략.

부록 4 출전문헌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釋譜詳節	1447	한글학회(권 6, 9, 13, 19) / 천병식(1985) 3[복각본], / 어문학회 권 11[복각본], / 미간 (20, 21), / 김영배(23, 24),/세종기념사업회 (6 ,9 ,11 ,13 ,19)// **입력 10권** ③, ⑥, ⑨, ⑪, ⑬, 19, 20, 21, 23, 24
龍飛御天歌	1447	아세아문화사
月印千江之曲 (上)	1447	국어학 1
訓民正音 諺解本	1447?	서강대, 1972] 世宗御製
月印釋譜	1459	세조 5년. 서강대본(1, 2) / 홍문각 (7, 8) / 대제각(9, 10, 17, 18), / 未刊 (11, 12), /교학연구사 (17)[보림사본] / 홍문각(13, 1, 21[복각/광홍사판], 23), /김영배(22[복각]),/ 모산학 술연구소 ([복각/ 무량굴판]) / 세종기념사업회(1, 2, 7, 8, 9, 10) // **입력 16권** ①, ②, ⑦, ⑧, ⑨, ⑩, 11, 12, 13, 14, 15, 17, 18, 21, 22, 23
楞嚴經諺解	1461	세조 7년. **卷1 ~ 10** 계명문화사
法華經諺解 / 妙法連華經諺解	1463	세조 9년 대제각, 총 **7권 7책**(8책)
般若心經諺解 / 心經諺解	1464	동악어문학회 학술총서 3 '반야심경의 연구'에 영인.대흥기획
上院寺御牒·同重創勸善文	1464	
阿彌陀經諺解	1464	대제각, 홍문각, 1982] 1장~29장. 목판본.
禪宗永嘉集諺解 (上·下)	1464	세조 10년 홍문각,1983]
金剛經諺解 / 金剛般若波羅密經諺解	1464?	홍문각, (上·下)1982]
圓覺經諺解	1465	세조 11년 대제각 (홍문각)복각본]
救急方諺解	1466	세조 12년 한글학회(대제각)
牧牛子修心訣	1467	한국문헌학연구소(규장각본)일사문고]
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	1467	세조조 아세아문화사 / 홍문각
四法語諺解 / 法語諺解 / 法語	1467	세조 13년. 신미가 4편의 법어에 구결을 달고 언해함. '牧牛子修心訣'와 '몽산화산법어'에 合本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內訓	1475	홍문각] 序 目錄 卷一 卷二 卷三 (3권)
分類杜工部詩諺解 初刊本	1481	6권~25권 홍문각// 1, 2, 4권 제외 나머지 모두 전함. 3, 5, 6, 7 … 25 // 입력 ⑥, ⑦, ⑧, ⑩, ⑪, ⑭, ⑮, 16, 17, 19, 20, 21, 22, 23, 24, 25 // 미입력 3, 5, 9, 12, 13, 18,
三綱行實圖	1481	성종 12년 1581년의 복각본
金剛經三家解	1482	성종 13년 영남대출판부 (한글학회)
南明集諺解	1482	성종 13년 대제각 永嘉大師證道歌南明泉禪師繼頌諺解
靈驗略抄	1485	명종 5년 원간본(1485)는 不傳. 입력본은 1550년의 복각본임. 그러나 15세기 자료로 취급(홍윤표 선생 해제)
佛頂心陁羅尼經/ 觀音經諺解	1485	홍문각, 1982]
五大眞言	1485	범자와 한자의 진언에 한글 음역을 붙인 것.(성종 16년) // 한글음역만으로 된 한글판 오대진언(성종 7년, 1476 추정)이 최근 발견됨.
救急簡易方	1489	성종 20년 단국대출판부
衿陽雜錄	1492	이기문(동양학 5집)
樂學軌範	1493	성종 24년
眞言勸供	1496	연산군 2년(1496) 인수대비 한 씨의 명으로 학조가 교정·번역한 언해서. 진언권공과 삼단시식문이 합본되어 있으므로 이 두 책을 합쳐 「공양시식」이나 「시식공양」으로 불러야 하나 체재의 차이가 많아 한 책으로 간주하기엔 어려움이 많음.
三壇施食文	1496	연산군 2년(1496) 인수대비 한 씨의 명으로 학조가 교정·번역하여 간행한 언해서. 진언권공과 삼단시식문이 합본되어 있으므로 이 두 책을 합쳐 「공양시식」이나 「시식공양」으로 불러야 하나 차이가 많아 한 책으로 간주하기엔 어려움이 많음.
六祖法寶壇經諺解 上·中	1496	홍문각, 1992(上·中)] // 下는 不傳
神仙太乙紫金丹	1497	서지학보 6 영인. 방점 완전히 사라진 최초 문헌.
이상 15세기 총 문헌수 : 90권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法華經諺解 / 改刊法華經諺解	1500	연산군 6년(1500)의 목판본. 2권 2책 전함. // 법화경언해(1463)와는 내용이 완전히 다름.
樂章歌詞	1500?	(1542) 중종조
老朴集覽	1510?	
續三綱行實圖	1514	중종 9년 국립중앙도서관본
飜譯老乞大 上·下	1517	아세아/1980/上下
飜譯朴通事 上	1517	대제각
飜譯小學	1518	중종 13년(1518) / 홍문각, 1984]
辟瘟方諺解	1518	중종 13년
呂氏鄕約諺解(尊經閣本)	1518	태학사,1978]
二倫行實圖	1518	원간본-옥산서원본 단국대, 1978]
正俗諺解	1518	(이원주 교수본) 태학사, 1978] 홍문각(원간, 규장각17세기, 일사문고 1792)
重刊警民編	1519	
呂氏鄕約諺解(華山本)	1519~74	
別行錄節要諺解	1522	중종 17년, 1책(목판본).
簡易辟瘟方	1525	홍문각(중간1578, 1613)
訓蒙字會	1527	단대출판부, 1971]
牛馬洋猪染疫病治療方	1541	홍문각, 1984]
分門瘟疫易解方	1542	중종 37년
救荒撮要	1554	명종 9년. 초간본 不傳. 가까운 판본만이 傳함.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1563	명종 8년 태학사. 이본 많음. / 남고사본(1801) : 서울대 고도서본(태학사), / 용주사본(1796) : 규장각본(태학사)
禪家龜鑑諺解	1569	선조 2년. 초간본에 오자가 많아 광해군 2년(1610)에 중간본 간행(전라도)
眞言集	1569	선조 2년 // 중간본 4종 ; 설악산 신흥사(효종 9, 1658), 묘향산 불영대(숙종 14, 1688), 화순 만연사(정조 1, 1777), 양주 망월사(정조 24, 1800) ; 모두 2권 1책
七大萬法	1569	홍문각, 1984]
諺簡	1571-1603	김일근
呂氏鄕約諺解(一石本)	1574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千字文 / 光州千字文	1575	단대출판부
百聯抄解	1576	효성여대
新增類合	1576	단대, 1972]
誡初心學人文	1577	전라도 송광사 판(선조 10년, 1577; 방점있고 t구개음화 반영),경기도 서봉사 판(선조 16년, 1583; 방점없고 t구개음화 없음) 이본 차이 큼.
發心修行章	1577	전라도 송광사 판(선조 10년, 1577; 방점있고 t구개음화 반영),경기도 서봉사 판(선조 16년, 1583; 방점없고 t구개음화 없음) 이본 차이 큼.
野雲自警序	1577	전라도 송광사 판(선조 10년, 1577; 방점있고 t구개음화 반영),경기도 서봉사 판(선조 16년, 1583; 방점없고 t구개음화 없음) 이본 차이 큼.
警民編 /重刊警民編	1579	중종 14년(1519)의 초간본은 不傳. 선조 12년(1579)의 중간본이 전하므로 '중간경민편'이라고도 함. '경민편언해'(효종 9년, 1658)와는 별개로 취급.
二倫行實圖	1579	(교서관 개간)
續三綱行實圖(重刊本)	1581	
千字文 - 石峯	1583	단대출판부
小學諺解	1588	선조 21년 간행. 단대동양학연구소.
詩經諺解	1588	선조 21년.
周易諺解	1588	
大學諺解	1590	선조 23년. 교정청 간행. 단대퇴계학연구소. 대학언해와 중용언해는 합본되어 한 책임.
論語諺解	1590	선조 23년. 교정청 간행. 단대퇴계학연구소
孟子諺解	1590	선조 23년. 교정청 간행. 단대퇴계학연구소
中庸諺解	1590	선조 23년. 교정청 간행. 단대퇴계학연구소
孝經諺解	1590	선조 23년. 교정청 간행. 조선학보 27집(1963).
이상 16세기 총 문헌수 : 46권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癸丑日記	1600?	광해군
諺解瘧藥症治方	1600?	홍문각, 1995
諺解救急方	1608	선조 41년
諺解痘瘡集要	1608	홍문각, 1990] 上下
諺解胎産集要	1608	홍문각, 1990] 1장~76장
樂學軌範-重刊	1610-55	
練兵指南	1612	광해 4년
東醫寶鑑 湯液篇	1613	태학사, 1986]
詩經諺解(物名諺解)	1613	
東國新續三綱行實圖-4 三綱烈女圖	1617	홍문각, 1992]
東國新續三綱行實圖-5 三綱忠臣圖	1617	홍문각, 1992]
東國新續三綱行實圖-6 三綱孝子圖	1617	홍문각, 1992]
東國新續三綱行實圖-7 續三綱烈女圖	1617	홍문각, 1992]
東國新續三綱行實圖-1 烈女圖	1617	홍문각, 1992]
東國新續三綱行實圖-8 續三綱忠臣圖	1617	홍문각, 1992]
東國新續三綱行實圖-9 續三綱孝子圖	1617	홍문각, 1992]
東國新續三綱行實圖-2 忠臣圖	1617	홍문각, 1992]
東國新續三綱行實圖-3 孝子圖	1617	홍문각, 1992]
女訓諺解	1620-40	고려대만송문고본, 홍문각, 1990] 上下
於于野談	1621	
馬經抄集諺解	1623-49	규장각본, 홍문각, 上下 간행연도 1682??
家禮諺解	1632	가람문고본, 홍문각, 1990] **1권~10권**
重刊杜詩諺解/ 分類杜工部詩諺解-重刊本	1632	以會文化社, 1990] **1권~25권**
新傳煮取焰焇方諺解	1635	
火砲式諺解	16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 홍문각, 1990]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痘瘡經驗方	1636-74	규장각본
勸念要錄	1637	홍문각, 일사문고본
救荒撮要辟瘟方	1639	인조 17년
辟瘟新方	1653	규장각본 홍문각, 1984]
語錄解初刊本	1657	韓國文化4, 1983]
警民編諺解	1658	효종 9년. 단국대홍문각, 1990]
救荒補遺方	1660	현종 1년
新刊救荒撮要	1660?	(윤석창교수본) 태학사, 1986]
千字文(七長寺版)	1661	
類合-七長寺版	1664	목판본 1책.
語錄解改刊本	1669	韓國文化4, 1983] 1장~40장
老乞大諺解	1670	규장각본, 아세아문화사, 1973] 上下
捷解新語 원간본	1676	숙종2년. 홍문각, 1989] 규장각본, 대제각
朴通事諺解	1677	홍문각, 1990] 규장각본, 아세아문화사
新刊救荒撮要(가람문고본)	1686	태학사, 1986]
譯語類解	1690	대제각, 아세아문화사, 1982]
新傳煮硝方諺解	1698	
이상 17세기 총 문헌수 : 79권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類合(영장사版)	1700	
千字文(영장사版)	1700	
童蒙先習諺解	1700?	숙종조
太平廣記諺解	1700?	선조-경종
念佛普勸文(龍門寺本)	1704	숙종 30년. 1책 목판본(원간본). 경북 예천 용문사본. 규장각 고서.
伍倫全備諺解	1721	아세아문화사, 1982] :권1~권8
二倫行實圖-중간본	1727	
二倫行實圖 (규장각본-중간본)	1727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靑丘永言	1728	영조 4년
二倫行實圖(각도감영판)	1730	
千字文(松廣寺版)	1730	영조 6년. 1책 목판본(全南 順天 松廣寺)
女四書諺解	1736	홍문각, 1982]
御製內訓諺解	1737	서울대고도서본, 홍문각, 1990]
御製小學諺解	1744	영조 20년
御製常訓諺解	1745	규장각본, 홍문각, 1984]
御製自省編諺解	1746	
松江歌辭	1747	영조 23년
同文類解	1748	연희대학교출판부, 4289] (上; 미입력)
捷解新語 / 改修捷解新語	1748	영조 24년. 홍문각, 1989] 권1~ 권10
大學栗谷先生諺解	1749	홍문각, 1984]
論語栗谷先生諺解	1749	홍문각, 1984]
孟子栗谷先生諺解	1749	홍문각, 1984]
中庸栗谷先生諺解	1749	홍문각, 1984]
三韻聲彙	1751	
地藏經諺解	1752	홍문각, 1980] 地藏菩薩本願經 (上中下)
註解 千字文	1752	
王郎返魂傳	1753	
闡義昭鑑諺解	1756	영조 32년 규장각본, 홍문각, 1982] 권1 ~ 권4
御製訓書諺解	1756	영조 32년 규장각본, 홍문각
種德新編諺解	1758	홍문각, 1982] 御製序 치제문 본셔 上中下
御製警世問答諺解	1761	
御製警民音	1762	규장각본, 홍문각, 1982]
御製警世問答續錄諺解	1763	
海東歌謠	1763	영조 39년
古今歌曲	1764	영조 40년
念佛普勸文(桐華寺本)	1764	영조 40년. 팔공산 동화사. 영남대 도남문고
御製祖訓諺解	1764	영조 40년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念佛普勸文(龍門寺本)	1765	영조 41년. 묘향산 용문사. 충남대
念佛普勸文(興律寺本)	1765	영조 41년. 구월산 흥률사. 경북대/고려대
朴通事新釋諺解	1765	홍문각, 1985] 권1 ~ 권3
御製百行願	1765	규장각본, 홍문각, 1982] (--源?)
淸語老乞大	1765	1차 숙종 29(1703) 不傳 / 2차 영조 41(1765)) // 新飜老乞大/新釋淸語老乞大/淸語老乞大新釋
靑丘歌謠	1769	
漢淸文鑑	1770?	영조말년
十九史略諺解	1772	국립중앙도서관본, 홍문각, 1982] 권1~2
三譯總解(重刊)	1774	=重刊 三譯總解 정조 1년(1777) 간행. 규장각본. 홍문각 영인. 초간본(숙종30, 1704)은 부전.
譯語類解補	1775	영조 51년 대제각
念佛普勸文(海印寺本)	1776	영조 52년. 陜川 海印寺本. 일사문고본/경북대/국립도서관/계명대, 태학사
明義錄諺解	1777	홍문각, 1982]
小兒論	1777	=新釋小兒論. 연희대학교출판부, 4289]. 정조 1년(1777) 간행. 규장각본. 홍문각 영인. 초간본(숙종30, 1704)은 부전.
八歲兒	1777	=新釋八歲兒. 연희대학교출판부. 정조 1년(1777) 간행. 규장각본. 홍문각 영인. 초간본(숙종30, 1704)은 부전.
方言集釋	1778	서울대고도서본, 홍문각, 1985] = 方言輯釋 = 方言類釋
續明義錄諺解	1778	홍문각, 1992] 홍문각(초간본, 중간본 17c)
才物譜	1780?	정조
重刊捷解新語 .	1781	정조 5년(1781). 첩해신어의 2차 개수본(不傳)을 板下本으로 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重刊本
倭語類解	1781-82?	정조 25~26년경 대제각, 上下 口訣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	1782	정조 6년 (윤음1)
諭中外大小臣庶綸音	1782	정조 6년 (윤음2)
諭海西綸音	1782	정조 6년
諭湖西大小人民等綸音	1782	정조 6년
諭京畿民人綸音	1783	정조 7년 (윤음4)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	1783	정조 7년 (윤음8)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	1783	정조 7년 (윤음7)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	1783	정조 7년 (윤음6)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	1783	정조 7년 (윤음10)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	1783	정조 7년 (윤음3)
諭咸鏡道南北關大小士民綸音	1783	정조 7년 (윤음9)
諭湖南民人等綸音	1783	정조 7년 (윤음5)
字恤典則	1783	정조 7년
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	1784	정조 8년(윤음11)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臣軍布折半蕩減綸音	1784	정조 8년(윤음12)
御製諭濟州民人綸音	1785	정조 9년(윤음13)
不憂軒集	1786	정조 10년
念佛普勸文(禪雲寺本)	1787	정조 11년. 茂長 선운사 - 가람문고
兵學指南	1787	정조 11년
加髻申禁事目	1788	홍문각, 1982] 1장~10장
古今釋林	1789	정조 13년
蒙語老乞大	1790	西江大 人文科學1983] **권1 ~ 권8**
蒙語類解	1790	上·下·補編, 語錄解 로 구성. 방효언이 몽어노걸대, 첩해몽어 등과 함께 1790년 수정 간행함. 규장각본, 대제각. 1971 서울대 출판부 영인.
武藝圖譜通志諺解	1790	武藝圖譜通志諺解, 경문사, 1981]홍문각
隣語大方	1790	정조 14년. 10권 5책 목판본. 규장각본, 태학사, 1986] **권1 ~ 권10**
捷解蒙語	1790	홍문각, 1983] **4권.**
孤山遺稿	1791-8	
增修無寃錄諺解	1792	정조 14년. 3권 2책. 홍문각, 1980] **권1 ~ 권3**
諭諸道道臣綸音	1794	윤음14
養老務農頒行…綸音	1795	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鄕音儀式鄕約條例綸音
重刊老乞大諺解	1795	홍문각, 1984] 上下
敬信錄諺釋	1796,	佛嚴寺版, 태학사, 규장각본
新傳煮取焰焰方諺解(重刊本)	17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용주사본	1796	명종 8년 태학사. 이본 많음. / 남고사본(1801) : 서울대 고도서본(태학사), / 용주사본(1796) : 규장각본(태학사)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五倫行實圖	1797	홍문각, 1989] 孝忠烈兄宗朋社
濟衆新編	1799	정조 23년, 8권 5책 규장각본, 태학사
이상 18세기 총 문헌수 : 149권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盧溪集	1800	
農家月令歌	1800?	
物名攷	1800?	순조
物譜	1800?	李載威(1755-1825) 정리. (1992) 영인
閑中錄	1800?	순조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남고사본	1801	명종 8년 태학사. 이본 많음. / 남고사본(1801) : 서울대 고도서본(태학사), / 용주사본(1796) : 규장각본(태학사)
胎敎新記諺解	1801	순조 1년 국립중앙도서관본
新刊增補 三略直解	1805	순조 5년
蒙喩篇	1810	
諺文志	1824	순조 24년
頤齋遺稿	1829	
斥邪綸音	1839	헌종 5년
諺音捷考	1846	2권1책 필사본.
太上感應篇圖說諺解	1852	철종 3년. 5권 5책. 태학사, 1986] 정신문화연구원본
醫宗損益附餘	1868	규장각본, 태학사
閨閤叢書	1869	고종 6년, [홍문각, 1990] 가람문고본,
歌曲原流	1876	고종 13년
南宮桂籍	1876	태학사, 홍문각, 1992] 서울대고도서본,
過化存神	1880	태학사, 홍문각, 1982] 규장각본,
三聖訓經	1880	태학사, 홍문각, 1992] 규장각본,
華音啓蒙諺解	1880?	고종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斥邪綸音	1881	어제척사윤음
竈君靈蹟誌	1881	태학사, 홍문각, 1982]
敬惜字紙文	1882	서울대고도서본, 태학사홍문각, 1982]

문 헌 명	간행년도	서 지 사 항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1882	중외척사윤음
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1882	어제팔도윤음
關聖帝君明聖經諺解	1883	규장각본, 태학사
明聖經諺解	1883	
易言諺解	1883	4권 4책의 신식활자본.
關聖帝君五倫經	1884	태학사, 홍문각, 1982]
마가복음	1884	
方藥合編/ 중정방약합편	1884	
예슈셩교젼셔	1887	고종 24년 로스본.
國漢會語	1895	규장각본, 태학사
독립신문	1896	고종 33년
신약젼셔	1900	
이상 19세기 총 문헌수 : 44권		

■ Abstract

A Study of Lexical Diffusion in Korean

Sang-Oak Lee

To sum up the result of this quantitative investigation, we could point out two problems.

The first problem is that as we can see in chapter 2, lexical items change not to a single reflex but often to a group of diverse reflexes. Language change often include stages of variants of different quantity appearing gradually and unifying into one final form. Such would be what we would like to describe in lexical diffusion. The second problem is that as we can see in examples in chapter 2, the orthography in many cases are hypercorrections imitating earlier forms, which therefore is often removed from actual pronunciation. This is especially common in chapter 3 where we can see that the orthography in the variants that have been classified as being intermediate and counter to the rule is so detached from the actual pronunci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capture the main current of the change. But such phenomena should not be regarded as being in conflict with the theory of change by lexical diffusion. For, the theory of lexical diffusion was proposed to mend the contradiction in the Neogrammarian thesis that change occurs abruptly without exception. Data with such counterexamples are therefore more appropriate for testing the theory.